

# 日本醫學에서 古方派에 대한 考察

愼賢揆 · 尹暢烈\*

## I. 서 론

韓醫學은 中國을 중심으로한 韓國과 日本의 傳統醫學으로 세계의 모든 의학이 西歐醫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 인간의 질병치료와 건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3개 국가의 한의학 의료역사속에 유독 漢代 張仲景의 「傷寒論」의 학사상은 어느 나라도 임상에 있어서 그 사상에 대한 편중이 없이 크게 중요시되어 발전하여 왔다.

그 중 일본에서는 근세에 들어와 張仲景의 「傷寒論」 사상을 주류로 하면서 연구와 임상, 저술활동이 활발하였다.

일본인에 의해서 「傷寒論」에 관한 研究活動의 한 단면으로 龍野一雄氏는 日本東洋醫學會會報 第二號에 「傷寒論」研究書目이라고題하여 일본 「傷寒論」 관련 서적 531종의 문헌을 列記한 일이 있어<sup>1)</sup>, 일본의학에서는 「傷寒論」의 본 고장인 중국에 못지 않은 독자적인 傷寒醫學思想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3개국중 일본의 古方派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즉 일본에서 張仲景의 傷寒學說을 중시하게된 사회 문화적 및 의학적 배경을 고찰하고 일본 古方派의 醫家 및 醫學思想, 傷寒 관련 著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II. 본 론

1. 室町時代(무로마치시대: ~1573년) 以前の 日本의학

일본의학의 시초는 중국 吳나라 사람 知聰이 「藥書」, 「明堂圖」 등 160권을 가지고, 562년 가을 8월에 來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外國 醫書, 특히 鍼 관계의 의서가 일본에 전해진 시초로, 중국의학의 영향은 강렬하였다. 즉 奈良(나라)시대 이전부터, 일본의 사회는 중국문화나

新羅, 隋, 唐의학의 은혜를 입는 일이 매우 많았다. 「古事記」에 의하면, 질병을 앓고 있던 允恭天皇(인교덴노오. 記紀系譜上的 五世紀 中葉의 천황으로 人德天皇의 皇子로, 母는 磐之媛, 安康天皇과 雄略天皇의 아버지였다.)는 新羅의 大使에 의하여 오랫동안 앓던 질환을 치료받았다. 만약 신라대사의 의료도움이 없었다면 42년씩이나 오랫동안 걸쳐 황위를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한 일본 천황의 역사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일본 국가와 社會의 歷史도 크게 변화했을 것이다.

이외에 당시의 선진국인 隋나 唐으로부터 직접 遣隋使나 遣唐使를 파견하여 일본의 사회에 들어온 의술과 문화도 천황이나 귀족은 물론 일반국민의 병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내어 나라시대 前의 의료사회에 큰 공헌을 하였다.

불교의학이 융성하였던 나라시대에는 救療시설이 각 사원에 설치되어 貧者나 病人을 구제하기 위하여 당시의 승려들은 수행의 한 부분으로서 의학을 배웠다. 이처럼 僧으로서 醫를 겸한 사람들을 僧醫라고 불렀다.

나라시대의 僧醫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唐의 승려 鑑眞(687년 - 763년)이다. 鑑眞은 약방에 상세하였고, 모든 약물의 진위를 구별하는데 코로써 이것을 분별하여 하나의 착오도 없었다.라하였으며 「鑑上人秘方」一卷을 전하여 醫家들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鑑眞을 祖로써 그 像을 제사지냈다.

이처럼 鑑眞和尚은 天平勝寶 六年(754년), 唐으로부터 일본으로 불교의 계율 이외에 많은 의약품을 가지고 와 奈良(나라)의 正倉院에는 지금도 당시의 귀중하고 오래된 한약이 보존되어 있다.

불교의학은 飛鳥(아스카)시대부터 室町(무로마치)시대의 末(592년 - 1573년)까지, 약 1천년 간이나 일본 의학계에서 지배적인 指導力을 발휘하였다.<sup>2)</sup>

중국에서는 宋이 멸망하고 金元시대에 이어서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1)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1984 書苑堂 p.48

2)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313-314

명의 세상이 되었다. 明代에 많은 名醫가 나왔지만 명의 의학은 金과 宋의 의학을 이어받은 것이었으므로, 명에 이어진 金과 元은 의학은 오랫동안 일본의 의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때 무로마치 막부 三代의 將軍 足利義滿은 明과의 交通, 貿易을 장려했으므로 일본의 승려나 의사도 활발하게 명에 건너가 金, 元, 明의 醫方을 배워 많은 의서를 가지고 돌아온 자가 많아 중국 醫方은 금방 일본에 퍼졌다. 명에 유학을 12년간 한 田代三喜나 그 愛弟子인 曲直瀬道三은 특히 유명한 新知識의 名醫였다. 3)

일본에 張仲景 「傷寒論」 사상의 본격적인 도입은 坂淨運에서 부터였다.

室町時代 明應年間에(1492~1500) 坂淨運이 明朝에 건너가 張仲景學說을 학습하고 귀국시에 「傷寒雜病論」 등의 書帶를 갖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張仲景學說은 대단히 큰 영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저서로는 「新椅方」, 「遇仙方」, 「續添鴻室秘要鈔」 등을 撰하였고, 그 후 關東지방의 永田德本이 張仲景學說을 倡導하여 後世 일본 漢醫의 “古方派의 先驅者”라는 명예를 얻었다. 4)

## 2. 安土桃山時代(1573년~1603년)

日本の 근세 초기에 해당되는 安土桃山時代는 日本醫學에 처음으로 西洋醫學이 유입되기 시작한 時代이며, 이는 東洋의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西洋醫學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어 南蠻流의 外科術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후 다시 和蘭流 外科術이 도입되었다.

이때 일본의 의학파는 李朱(李東垣, 朱丹溪)學術이었으며 이들 학파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일본 本學派의 수장인 田代三喜(1465~1537)의 門弟인 曲直瀬道三(1507~1594)이다.

道三은 李朱學說을 중심으로 京都에서 啓迪院을 설립하고 많은 門弟들을 양성하여 道三의 일파를 이루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의사로서 關東지역에서 활동하던 永田德本은 李朱學說의 溫補法을 반대하고 張仲景의 醫說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5) 6)

### 1) 傷寒醫家 및 著書

#### (1) 永田德本(1513~1603)

저명한 민간의생으로 소, 말등에 타고서 사방을 유주하며 빈천한 자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약을 줄

때마다 단지 18文만 받았다. 청년시기에 僧醫 月湖의 傳人인 玉鼎에게서 李朱의 學術을 배웠고 후에 張仲景學說에 깊이 감동하여 그의 實證과 경험을 중히 여긴 仲景學說을 최고로 여겨 「傷寒論」의 적극적인 主唱者가 되었다. “汗吐下法을 재하고는 秘術이 없다.”, “藥은 有毒烈性한 藥이 좋다.”, “法은 마땅히 越人과 長沙에게서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著書로는 「醫之辨」, 「梅花無盡藏」이 있다. 이 외에 永田德本の 이름을 빌려 쓴 책이 소위 “德本秘傳書”라고 있는데 書名으로는 「德本醫方」, 「德本十九方」, 「知足齋醫鈔」 등이 있으나 眞僞를 판별하기 어렵고 이미 亡佚되었다. 다만 淺田宗伯이 著述한 「勿誤藥室方函口訣」중에 永田德本の 處方이 2개 있다. 하나는 초기에 李朱學說을 배우고 著述한 「梅花無盡藏」에 들어 있는 處方으로 處方名은 “治脹滿主方”이고 다른 處方은 “發陳湯”으로 「傷寒論」의 柴胡桂枝湯類이다. 7)

## 3. 江戸時代(1603년~1868)

### 1) 사회 문화적 배경

17세기 중엽 幕藩체제의 확립이후 일본 봉건사회는 그 발전이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단계에 도달한 시기였다. 봉건영주계급의 지배계급과 농공행상의 비지배계급이 신분질서에 의해 단일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간의 지배자도 없이 직접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체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과 자연경제를 고유의 기초로 하는 봉건사회이면서도 상업적 농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상품경제의 일정한 발달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8)

이 幕藩체제가 성립한 후 그 동안 계속된 내란의 발생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약 230년간의 평화시기로 막 들어서면서 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량의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출현하면서 생활도 점점 도시화되어, 18세기 중엽 江戸(지금의

4)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6

5)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7

6)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7

7)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 47

8) 井上清 일본의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179

3)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316

東京)의 인구는 이미 80만이상(1721년에 행해진 최초의 거의 정확한 인구조사에서는 501,394명이었다.<sup>9)</sup>이 되었다.<sup>10) 11)</sup>

江戸時代に 들어와 평민들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엄격한 신분제였지만 그들의 사회적 세력에 대한 자각도 생겨났다. 즉 평민의 경제적, 사회적 세력의 상승과 함께 평민이 문화창조와 보급의 주요한 담당자가 되었다. 15-16세기에 문화창조력은 僧侶와 무사계급에서 민중계급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지만 그 이행은 17세기 후반에 완료되었다. 長岐의 富商 西川如見은 “儒士, 醫師, 詩人, 藝術家 대부분은 町人중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며 평민이 문화의 담당자가 된 긍지를 이야기하였다. 이들의 예술문화는 기존과 달리 어느 분야도 비종교적이고 現世의이었다. 각 종 소설에 불교가 가장 배척하는 성욕과 물욕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것을 주제로 삼았다. 그래서 이와같은 시대가 되고서야 비로소 학문도 또한 사원으로부터 해방되었다.<sup>12)</sup>

## 2) 상한학파의 생성할 수 있는 배경

### (1) 사상적 배경

近世以前の 일본에서는 그 사상적 지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거의 유일한 수단은 종교(불교와 신사신앙)였고 學問도 佛敎에 부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들이 비종교적 현세주의 사상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민에 대한 사상적 지배의 수단도 종교만으로는 불충분해져 現世主義 사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배자의 그러한 필요에 응한 것이 바로 儒敎였다.

儒敎는 고대 天皇制의 성립기에 일본에 전해져 각 시대의 상층 지배자에게 크게 존중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유교는 지배의 사상이념이 아니라 교양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德川幕府의 성립시기에 들어와서 藤原惺窩(1561-1619)가 처음 유교를 幕府와 결합시키는 실마리를 열었다. 이때 일본의 유학의 主流를 이룬 것은 中國의 宋王朝 말기(12세기)에 朱熹가 대성한 朱子學이었다.

朱子學은 陰陽二氣의 작용에 의해 天地自然의 만물과 인간 사회의 질서가 생성된다는 이론으로 大義와 名分을 사회 최고의 법칙으로 삼았다. 이 朱子學의 思辨論인 세계관을 將軍, 大名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대의명

분론은 그들의 계급적 본능에의해서도 용의주도하게 신봉될 수 있었다. 또한 理氣說에 대해서는 儒學者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론과 비판이 일어났지만 大義名分과 家父長制 도덕의 가르침을 강조한 것은 儒敎의 어느 學派에도 공통이었다. 이리하여 유교 도덕은 일본사회의 지배적 도덕이 되었다.<sup>13)</sup>

이후 儒學의 사상이 퍼지고 儒者가 직업으로서 성립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朱子學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나타나고 知行合一을 주장하는 王陽明(16세기초 중국학자)의 학설 陽明學으로 옮기는 자도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 그 자체에서 이론을 구성하려고 하는 학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 최초의 인물은 熊澤蕃山으로 그는 현실 인식을 심화시켜 陽明學이나 朱子學의 思辨에서 벗어나 정치이론은 때와 장소와 상황(時, 所, 位)에 따라 변해야 할 것이며 聖인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제작한 法이나 禮(사회질서)를 보편 타당한 教條로서 지키는 것은 ‘死學’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 시대의 낭인출신 山鹿素行(1622-1685)은 朱子學에 의문을 품고 聖人 자신이 말한 것을 聖인의 참뜻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객관적인 학문 연구의 길을 열었다. 그는 聖인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歷史, 法制, 人情, 風俗을 잘 연구해야만 한다고 歷史主義的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學問史에서 학문방법으로서의 懷疑의 결정적 意義가 비로소 명확해진 것도 이 시대였다. 具原益軒(1630~1714)도 열렬한 朱子學者였지만, 만년에 朱子學은 孔子, 孟子의 가르침 그대로의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懷疑를 갖고 「大疑錄」을 지었다. 그 속에서 그는 “學問은 의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大疑는 즉 大進할 것이고 小疑는 곧 小進할 것이다. 疑心이 없으면 즉 進展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일본사상 풍조는 聖인의 文獻과 그 시대의 연

10)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41

11) 顧旭平 柯雪帆 識論日本古方派的形成 北京 中華醫史雜誌(제2권 제1기) 1987 p.47

12) 井上清 일본의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185, P.191, P.193

13) 井上清 일본의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P.193-194

9) 井上清 일본의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182

구에 의해 직접 聖人을 배운다고 하는 학문 풍조의 古學이 유행하였다. 이들은 아무리 聖人의 銳智에 의한 제작이라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수 백년이 지나면 社會도 변하니 따라서 規範도 거기에 응해서 고쳐져야만 한다고 하여<sup>14)</sup> 思想도 때, 장소,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醫學에도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저명한 京都의 町人 출신 漢學家 伊藤仁齋(1627~1705)는 유학영역의 古學을 提倡하고 「論語」, 「孟子」 등의 儒學典籍의 崇尚을 주장하고 의학에서도 復古를 주장하며, 思辨觀念的 醫學을 반대하였다.<sup>15)</sup>

즉 江戸時代의 유학에 대한 사상적 변화가 일본의 의학의 사상적 풍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僧侶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일본의학은 奈良(나라)왕조, 平安朝를 거쳐, 鎌倉, 室町時代에 이르러까지 문자 그대로 “僧醫時代”였지만, 室町時代 말경부터는 僧이외의 사람들이 中國(明)에 건너가 의학을 배우고 돌아와 의학을 전문적으로 經營하기 시작하였고, 德川時代에 들어와서부터 醫學을 전문으로하는 자와 함께 儒學者이면서 醫術을 겸비한 자, 즉 “儒醫”라고 稱하는 자가 나타났다. 당시 醫師의 지위는 儒者 밑이었지만 香川庵庵은 儒醫—本論을 주장하였다.<sup>16)</sup> 따라서 유학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醫家들에 의한 일본의학의 변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를 醫家에게 인식하기를 金元の 李朱醫學과 朱子の 儒學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속에 思辨合理主義의 思考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復古的 張仲景醫學은 순수한 관찰과 실천이 결합되어 도출된 것으로 處方證과 適應證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고 또한 現實을 提高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經驗實證主義的 醫學이라는 것이다.<sup>17)</sup>

이런 사상적 연관관계에 의해 일본 근세의학은 아래와 같이 3개 학파로 구별되었다.

즉 傷寒醫家인 名古屋玄醫, 後藤良山 등이 주장한 醫古法에는 儒學의 古學派에서의 ‘聖人의 道’에 대한 것과 공통되는 방법론적 태도가 있었다.<sup>18)</sup> 이들 觀念的인 사상을 비판한 醫家들은 점점 漢方醫學속에서 “古方派”가 형성하고, 반면에 ‘內經’이론에 기초를 둔 金元李朱學術을 주요한 의학사상으로 한 “道三流學派” 즉 칭하기를 “後世派”가 생겨

났다.<sup>19)</sup>

반면에 京都를 중심으로 關西에서 일어난 이들 古方醫家들은 後世方派를 배척공격하는데 열중하여 治方에 古方醫說을 편중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때에 古今諸家의 醫說에 치우치지 않고 그 설을 절충하는 “考證學派(折衷派)”가 江戸의 多紀家를 중심으로 關東에서 생겨나기 시작되었다.<sup>20)</sup>

그래서 근세 일본의학은 古方派와 後世方派, 이 두 파를 절충한 考證學派 3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 (2)의료사회의 변화

江戸시대에 들어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주거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고 따라서 의료에 대한 욕구도 증가되었다.<sup>22)</sup> 그래서 幕府정부는 醫學獎勵정책으로 근대 의료를 위한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다.

德川家의 歷代 將軍이 앓았던 癩, 그 외 여러 가지 무서운 병이 幕藩체제하의 서민사회에 가한 醫學的 악영향을 德川の 사무라이 官僚와 그 우수한 정치기구에 의해서 어느정도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에도幕府는 벽지의 無醫村 등을 구제하기 위해 醫官인 林良適과 丹羽貞機에게 명하여, 山野에서 구하기 쉬운 약초의 처방을 고르게 하였는데, 享保十四年(1729년) 이 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普救類方」 이라고 이름지어 출판하였다. 이 책은 에도幕府의 손에 의해 조속히 무의촌 대책의 一助하기 위하여 관계 각 방면에 배치되었다.<sup>23)</sup>

15) 顧旭平 柯雪帆 識論日本古方派的形成 北京 中華醫史雜誌(제2권 제1기) 1987 P.58

16)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41

17)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7

18) 井上清 일본의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199

19)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7

20)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0

21)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8

22) 顧旭平 柯雪帆 識論日本古方派的形成 北京 中華醫史雜誌(제2권 제1기) 1987 p.57

14) 井上清 일본의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p.195-196

그러나 당시 의사는 大名 즉 藩主에 의해 고용된 의사로서, 상업자본이 德川封建제에 의존하면서 점점 경제적 세력을 가지게 되자, 이른바 町醫者로서 민간에서도 의술을 業으로 하는 자가 서서히 많아지게 되었다.<sup>24)</sup> 즉 이전의 유명한 醫師들은 大名 및 藩主의 소속으로서 상류층의 환자치료가 주된 업무였다.

古方이 출현하기전의 일본의학의 주류는 曲直瀨道三을 대표로하는 後世方派이며, 이들은 중국의 李東垣, 朱丹溪, 虞天民 등의 의학사상을 흡수하였다. 이 曲直瀨道三은 당시의 통치자 豐臣과 德川에게 초청되었으나 侍醫는 되지 못하고 제 2대의 曲直瀨玄朔과 제 3대의 曲直瀨玄鑑은 각각 豐臣과 德川의 侍醫가 되었다. 이렇게 12대까지 모두 典藥頭가 되었다. 총괄하면 後世方派의 의가들은 대부분 상류사회에 복무하고 있어 임상경험이 비교적 적었다. 신분이 높은 환자를 치료할 시에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이런 이유로 치료시 온화한 약물만을 운용하게되었고, 아울러 합의제로 치료에 임하는 형식이 많았다. 이렇게 실제적 상황과는 이탈되는 이론만 늘어나니 이것이 후세방파 의학의 위기로 만든 원인중의 하나였다.

이외에 江戸시대에 들어와 국내는 각종 물품의 생산은 늘어나고 인구의 이동과 집중등으로 교통은 발전하고 여관과 음식점들도 많이 출현하게되어 따라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시작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국과 조선과의 왕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서구지역과도 빈번한 교류와 통상이 이룩되었다. 따라서 서구의 유행되는 전염병이 일본에도 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安政 5년(1858년)에 霍亂이 일본으로 전염되어 대유행하였다. 江戸에는 2~3개월 동안에 30만이 사망하여 江戸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발생한 새로운 난치병이 당시 일본의학계의 주류를 이루던 후세방파 의학으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의학방법을 의식하게 되었다.<sup>25)</sup> 이러한 의식이 일본 의료사회에서 고방파 의학의 형성을 이루는 배경이 되었다.

또 이 시기는 서양의학의 본격적인 도입기였다. 德川吉宗은 元文四年(1739년) 오란다의 책을 보고 그 圖畫가 너무나 정교한 것에 놀라 醫官인 野呂元丈과 儒官인 青木文藏 두 사람에게 長崎로 가

도록 명하여 오란다의 의서를 배우게 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 德川吉宗은 蘭學을 解禁하였다. 그리고 종교관계 이외의 洋書를 수입하여 그것들을 읽는 것을 허가하여 蘭學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이는 의학은 물론, 다른 자연과학 분야까지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일본에 온 오란다인이나 독일인의 중에서는 해박한 인물이 많았다.

민간에서도 병에 관한 사회적인 대책과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종두법이 長崎에 전래된 때에도 일본 민간 의사가 이것을 전수받는 데에 성공하였다. 또한 민간의 약품회(物産會)도 만들어졌다.

에도시대에 있어서 德川막부는 유교를 장려한 결과 의학도 불교로부터 유교정신으로 전환하여, 실증적인 방향으로 의학은 향하였다.

따라서 에도중기에 일본 의학계는 당시 상상하기도 못했던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 그 시작은 포르투갈인, 후에 오란다인이 전한 서양의학이었다. 그 치료방법은 중국의 의료보다도 광범위했다. 서양의학의 이론은 중국의 陰陽五行, 五運六氣의 說보다도 실용적이었다. 특히 외과술에는 동양에서는 단지 전설에 지나지 않았던 切開剔除의 수술이 항상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醫者들은 기뻐하며 이것을 배워 겨우 그 진상을 파악하였다. 오란다의 의술과 함께 서양의 실학도 또한 전해졌다. 일본의 의사는 치료방법과 함께 자연과학을 배웠다. 당시 이것을 蘭學이라 불렀다. 기묘한 것은 이와 같은 蘭學이 古方家の 門人の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古方을 추구한 것은 단지 옛날을 숭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제에 가까운 학술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蘭醫의 사이에서는 상당수 학자도 많고, 또한 誠心誠意, 學文尊重의 氣風을 기르고 있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蘭學의 효용이 밝혀짐에 따라서 에도幕府도 洋學을 解禁하여 일본의학의 본류는 洋方에 합해졌다.<sup>26)</sup>

이처럼 일본의학에 있어서 서양의술과의 실질적

24)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41

25) 顧旭平 柯雪帆 識論日本古方派의形成 北京 中華醫史雜誌(제2권 제1기) 1987 p.57

26)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319-323

23)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319

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관념론을 벗어나 실제적인 적을 추구하는 古方派 醫家들의 의학사상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서양의학 도입은 古方派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3) 流行性 感冒의 유행

徳川幕府에 들어와 국내는 생산활동의 증가로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이 잦아져 流行病의 감염성이 높아졌고, 국외는 중국과 조선과의 교류를 벗어나 서구지역과도 빈번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외국의 전염병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다.

외국으로부터 日本에 전래된 유행병의 근원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일본에서 맹위를 떨쳐 다수의 환자를 낸 가공할 만한 虎列刺(콜레라)의 근원지는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와지방으로 부터였다. 다음으로 고대에서 에도(江戶)시대 이후까지 일본인이 강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던 麻疹은 百濟로부터, 痘瘡은 新羅로부터 전염되었다.<sup>27)</sup>

그래서 유행병이 일본에 침입한 길을 살펴보면 문명의 길과 일치해 있었다. 즉, 痘瘡은 朝鮮을 경로로, 梅毒은 중국, 琉球(큐슈)경로, 콜레라는 이상의 것들을 혼합한 경로였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 있어서 유행병의 진행방향은 문명이 전진한 길과 일치해서, 서에서 동으로 전염되어갔다. 자세히 말한다면, 痘瘡은 筑紫(쓰쿠시, 지금의 후쿠오카현의 북서부와 남부) 또 長門(나가토, 지금의 야마구치현의 북서부)로 부터 천황이 있는 畿内로 전염의 경로가 되었고, 梅毒은 九州의 長崎, 坊ノ津나 關西의 堺로부터 문명의 진로와 똑같이 畿内를 지나서 (철포나 크리스티교가 나간 길을) 江戶(에도)으로부터 東北까지 梅毒전염의 여행을 계속했다.

인플루엔자와 콜레라의 진로도 梅毒등 다른 유행병과 거의 같았다. 결국, 대부분의 인플루엔자와 콜레라는 외국으로부터 거의 長崎에 상륙하였고, 모두가 인플루엔자와 콜레라의 微菌(세균의 속칭)오염과 전염력으로 中國(일본의 지방명)地方을 유린한 후 천황의 都가 있는 畿内に 침입하였고, 이윽고 將軍의 都인 江戶에서 날뛰었으며 콜레라나 인플루엔자의 處女地인 東北으로 진행하여 맹위를 떨쳤다. 이들의 역사적인 사실은 서양문명

이 가져온 鐵砲(조총)와 크리스티교의 문명 경로와 (梅毒, 痘瘡, 콜레라와 인플루엔자등) 유행병의 진로가 같이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8)</sup>

일본의 風邪(또는 風疾)는 세계적인 流行性感冒의 일환으로써 해외에서의 인플루엔자의 流行期와 일본의 유행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그 증거는 安政 원년(1854년) 삼월 삼일의 '神奈川條約' 즉 에도 幕府는, 아메리카의 페리제독과 화친조약을 체결하여, 下田과 箱館의 두 항구를 개항하는 '日米和親條約' 체결전의 嘉永年間(1848년 - 1853년)부터 諸外國과의 교통이 활발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은 이때부터 邪의 유행을 毎回 항상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 流行性 感冒의 다수가 西洋諸國의 인플루엔자(流行性感冒)의 유행에 동반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바이러스병인 인플루엔자의 폭발적인 유행을 가져오는 방아쇠 역할을 異常氣象의 寒氣가 해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sup>29)</sup>

따라서 江戶시대의 국내 인적 물적의 이동과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일본의 유행성 전염병은 상한 학과가 뿌리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流行性 感冒는 近世, 즉 에도시대가 되고나서부터 風邪, 風疫, 風疾 혹은 傷風이라 불렀고, 또한 단지 疫邪라고 불렀던 病중에서 그 病狀으로부터 추측해보건대 역시 流行性感冒일 것이라 생각되는 병이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러면 江戶시기에 들어와서 발생된 傷寒의 대표적 질병인 流行性 感冒에 대한 기록과 그 시대의 傷寒 流行病에 대한을 별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慶長 19年 (1614년) 9월: 畿内近畿, 風疾 流行「野史」

○ 元祿 6年 (1693년): 세계적으로 유행,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一般時疫에 걸려, 그 증상이 發熱, 惡寒, 頭痛如裂, 咳嗽, 身體重, 頭冷如水, 혹은 泄痢를 겸하였고 혹은 瘡과 같았다. 「牛山方考」

○ 寶永4年 (1707년): 12월, 이 처럼 세상 사

28)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19

29)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37-39

27)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18

람들이 咳嗽을 근심치 아니한 적은 없다.『折焚柴  
の記』

○享保元年(1716년): 3월, 風疾이 유행하다.  
여름, 熱病이 유행하다.

○享保元年(1716년): 여름, 에도에서 열병  
때문에 8萬여명이 1개월 동안에 죽었다. 관을 만  
드는 것도 때를 맞추지 못하여 술의 빈통을 사서  
死骸를 寺院에 매장하는데, 묘지에 묻을 곳이 없  
으므로 宗體에 관계없이 화장이 아니면 寺에선 사  
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화장을 하려고 하  
면, 화장터에 관의 수가 끝도 없이 쌓여있어서  
10일, 20일내에는 불을 붙이는 것도 할 수 없었  
다. 그 도착순으로 화장한다면 며칠을 훨씬 경과  
해 버린다 한다.

이런 경우에, 가난한 자의 死骸는 어쩔 수 없이  
마을의 長인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여, 役所  
에 이 實情을 호소한 바, 役所로부터 절에 이야기  
하여 산같이 쌓여 장사지내지 못하는 (가난한 자)  
의 死骸를 절에서 불사를 거행하여 死者의 명복을  
빌어준 후 누더기 菴에 감싸서, 배에 태워 모두  
다 品川沖에 흘려보내 수장하였다고 한다.

(이후 같은 내용의 다른 기록)

○正德6年 改元享保(1716년): 6월 22일 여름,  
열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이 많아 1개월 중에 武江  
의 마을들에서 죽는 자들이 8萬여명에 달하여, 관  
을 만드는 가계도 제때에 맞추지 못하여 빈 술통  
을 구하여 시체를 사원에 장례지내려 하고, 묘지  
에 묻을 곳이 없으면 宗體에 관계없이 화장하지  
않는다면 받아주지 않는다 하여, 화장하려고 하면  
棺桶이 무수히 쌓여 10일, 20일내에는 불을 붙이  
지 못하고, 그 도착한 순서로 한다면 며칠을 훨씬  
지나버린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자의 시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마을의 長이 되는 인물들의 도움도  
달지않아 公廳에 호소하여 높은 분들의 자비를 받  
아 사원에 맡겨져 장례를 치른 시체를 回向한 후  
에, 菴에 싸서 배에 태워 모두 品川沖에 흘려보내  
수장하였다고 한다.

(『正德享保間實錄』, 『閑窗瑣談』)

○享保15年(1730년): 8월 하순부터 風氣流行  
함이 있사오니, 이것은 異國으로부터 건너와 長崎  
로부터 流行하여 온 연유로 이오니 芋酒를 마시면  
간신히 벗어날 수 있다. 10월 초부터 麻疹이 돌  
아, 云云(『享保世說』)

○享保18年(1733년): 세계적으로 유행

○享保18年(1733년): 7월부터 疫癘(유행병)  
이 天下에 유행하다. (『武江年表』, 『風也集』)

: 6월부터 7월에 걸쳐, 海內 風邪 大流行  
(『泰平年表』)

: 7월 상순부터 유행병이 천하에 들었다. 13  
일, 14일 큰길에도 사람의 왕래가 끊겼다. 藥로  
流行病神의 형태를 만들어, 이것을 보내버린다  
(장례지낸다) 하여, 징과 큰 북을 두들겨 울리며  
모두 장단을 맞추며 바닷가까지 갔다. 여름 6월경  
부터 가을의 중간정도에 걸쳐 日本 국내에 유행병  
이 돌아서 大坂市中에 流行性感冒에 걸린 자가  
337,450인에 이르렀다. 7월 10일 전후부터 江戶  
市中, 그 뒤로 시골까지 風邪가 돌아 7월 18일,  
19일 경 風神장례 지내기가 엄청난 수로 많았기  
때문에, 7월 20일, 이것에 대해 布告가 있었을  
정도이다.

(윗글중 중복되는 내용의 다른 글)

○ 7월 상순부터 疫癘가 천하에 돌다. 13일,  
14일 大路왕래가 끊기고 벗짚으로 疫神의 형태를  
만들어 이를 장례 지내는데, 징과 큰 북을 울리며  
박자를 맞추어 가지고 바닷가에 이른다. (『武江年  
表』)

○여름 6월경부터 가을의 중반까지 日本 전국  
에 疫病이 돌아, 大坂三郷의 市中에서 이 風으로  
않는 자 337,450인이라 점검하였다 (『成形凶  
說』)

○丑 7월 10일 전후부터 江戶 마을 중 곳곳에  
風邪가 돌아 同 18일, 19일에 비교하여, 風神 장  
례가 과다하게 되어 同 20일에 포고가 있었다.  
(『一話一言』)

○죽은 자는 大坂 市中에 2,623인 시중의 경계  
지역에서 50인, 攝津國과 河內國에서 37인, 총계  
2,710인에 달하였다. 東京 大坂 및 諸國, 疫癘大  
行(『一話一言』)

○『泰平年表』作 自六月至七月 『續皇年代略記』  
作 七月

이 해 6월부터 가을 중반에 걸쳐 全國에 疫癘  
流行하여.....(至上) 攝津, 和泉, 河內는 봄부터  
時疫이 돌아 6월에 이르기까지 환자 및 死亡, 全  
癒의 수가 아래와 같다.

大坂 시내 患者 1,646인 內全癒 9,429인 死亡  
2,623인. 현재 6월 患者는 3,914인이다.

○『一話一言』에는 6월부터 가을 중반에 걸쳐  
大坂 三郷중에 환자가 모두 337,450인이다. 堺市  
中에 환자는 311인이고, 內 全癒 160인이며, 死

亡은 50인, 현재 환자는 109인이다. 이외 他 攝津國 西成郡, 東成郡의 모든 마을과 河內國 茨田郡의 모든 마을에 現在 患者 176인, 全癒 116인, 死亡 17인이다. (『虫附損害書留』)

○ 江戸에서는 7월부터 대부분 疫癘에 걸려 죽는 자 없이 出仕하는 諸士는 세네명, 시중을 왕래하는 자가 또한 한두명이 죽었다 한다. (『柳營年表秘鑑』)

○ 延享元年 (1744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諸國 風邪流行 (『武江年表』)

○ 延享四年 (1747년): 10월 상순부터 諸國 風邪流行. (『武江年表』)

○ 明和六年 (1769년): '稻葉風' 「一話一言」에 있는 것처럼, 세인들은 流感를 '稻葉風'이라 불렀다. 그 뒤로, 世事에 의한 명칭이 큰 流感에 붙여지게 되었다.

○ 安永五年 (1776년): 'お駒風' (세계적 유행). 이 流感는 그 때에 '城木屋 お(오)駒' (人名)라고 하는 姪婦를 모델로 한 노래 (淨瑠璃: 三味線에 맞춰 부르는 옛이야기의 音曲)가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お駒風'라고 불리었다. (『兎園小説』)

○ 天明一年 (1781년): '信濃風' (세계적 유행). 信濃의 國으로 이름 불려졌다.

○ 天明4年 (1784년): '谷風' (세계적 유행)

4월에 전국에 기근과 風邪등으로 인해 유행병 사망자가 3만여명에 달했다. 이 風邪를 세간에선 '谷風'이라 불렀다. 당시 力士였던 谷風棍之助는 천하무적(大横綱; 요코즈나. 일본 스모의 천하장사)이라 불릴 정도로 강했다. 그 강력무쌍한 谷風도 역시 流行性感冒에게는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 붙여졌다.

4월, 諸國이 饑饉, 時疫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다. (『武江年表』) 天明중에 유행한 風邪를 谷風이라 이름 붙였다. 이 谷風棍之助는 당시 無雙의 最수가 되어, 이에 이길 자가 적으므로 일찍이 교만하게 말하길, "어차피 土俵 위에서는 나를 쓰러트리는 건 어려우므로, 내가 늙는걸 보려면, 감기에 걸릴 때에 와서 보라." 하여 이 말이 세상에 전해져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던 중, 그 谷風이 風邪에 가장 빨리 걸렸으므로, 마침내 (風邪가) 그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이때 四方山人의 送風神狂詩가 있어 기록하여 증거로 한다.

"引道(히쿠나라쿠) 此風號谷風關關痰咳響西惡感發熱人無色, 煎樣如常藪有功, 一片生美和酒飲, 半

丁豆腐入湯空, 送君四里四方外, 千壽品川問屋中." (『兎園小説』 5集)

○ 天明甲辰 4年 春, 도시의 시민들이 頭痛을 앓고 壯熱, 脈洪大數急, 而嘔吐不止者尤多, 其證候頗劇, 殆有入衰之勢 (『保嬰須知』)

○ 「北海島志」를 살펴보면 말하길 寬政年間 田澤乙部(지금의 爾志郡에 속함)에 痘疹이 들었으나 夷地라 醫方이 없어 사망한 자를 셀 수 없다. (小鹿島 果 「日本災異志」 疫癘之部 三十頁)

○ 寬政七年 (1795년): '御猪狩風' (세계적 유행)이 유행하였다.

徳川 11代 將軍 家齊(이에나리)때, '御猪狩風'이 유행하였다. 이는 徳川家齊가 寬政 7年(1795년) 3월 초순, 小金原에서 사냥한 후에 感冒가 유행하였다. 그 환자의 옷 소매자락에 돼지나 사슴 등의 야수의 털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御猪狩風'라고 이름 붙였다.

○ 享和二年 (1802년): 'お七風', 'アンボン風' (암폰風), '薩摩風' (세계적 유행)이 유행하였다.

'야채가게 일곱째(八百屋 お七)'란 小唄(노래)가 유행했기 때문에, 'お七風'라고 불렸다. 또한 표류한 암폰(지명인 듯)人으로부터 감염했다 하여 'アンボン風' (암폰風), 혹은 '薩摩風'라고 불렸다.

○ 文化五年 (1808년): '넌코로風' (넌코로風)이 유행하였다.

이 무렵, 文化四年 (1807년) 겨울부터 文化五年 (1808년)의 봄과 여름경까지, 지방과 도시에서 'ねんねころころ節' (넌네코로코로 節)이란 노래집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노래에 연유해서, 그 가을에 유행한 風邪를 '넌코로風'이라 이름 붙였다.

○ 文化八年 (1811년): '風邪의 이름은 不明'

江戸와 京都에서, 사월 초순부터 風邪가 유행했다. 京都에서도 傷風(코감기)이 대유행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람의 귀신 인형을 만들어 이것을 마을 바깥으로 내보냈다. (『枳園隨集』)

○ 文政4年 (책의 연호가 맞지 않음)(1821): 'ダンホウ풍(단호우風)'이 유행하였다.

이 해에, 요즘처럼 노래의 하야시(가부키 등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음악)에 'ダンホウサンク-(단호산쿠우-)'라고 장단을 맞추는 것이 유행했다. 그래서 이 流感를 단호우風이라고 했다. 정부의 명령으로 일에 나가는 관리들에게 장발이 허가되었다. (『松屋筆記』)

○ 文政 4年 봄 2월경, 크게 유행한 風癘를 단



호우風이라 이름 붙였다. 이것은 이때에 유행한 諸에 단호산쿠우-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兎園小説』五集)

○ 文政 7年 (1824년): '薩摩風'이 유행하였다.

이 해, 봄부터 麻疹이 유행하여 夏秋에 이르렀다. 이어서 風邪가 돌았다. (『武江年表』)

甲申文政 7年 臘月부터 乙酉文政 8年の 봄까지, 일종의 傷寒을 앓는 자 있으니, 그 증은 초기는 일단 낮이 되어도 發汗하여 풀리지 않고, 下痢하길 하루에 몇번, 가볍게는 두세번, 중하면 열번 정도, 혹은 下痢하지 않고.....(『時選讀我書』)

○ 文政 10年 (1827년): '津輕風' (세계적 유행)이 유행하였다.

왜, '津輕風'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죄를 지으면 가마에 타고 가마는 俗間에서 장례의 도구인데, 이는 津輕侯가 大禮의 節에 가마에 타서 譴責하였기 때문이다.' (『甲子夜話』)

○ 天保二年 (1831년): '風邪의 이름은 不明' 그 때의 流行性感冒는 다음과 같았다.

'3월말부터 4월 중순에 걸쳐서 感冒가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芳香劑는 듣지 않았고, 대략 柴桂湯등으로 나왔다. 근래의 微疫은 다른 것도 이런 증세이다.

○ 天保 3年 (1832년): '琉球風' (세계적 유행)이 유행하였다.

이 해, 琉球인이 來朝하였으므로 '琉球風'이라 한다 (『武江年表』)

○ 嘉永 3年 (1850년): '風邪의 이름은 不明' '12월말 風邪 유행, 봄에 이른다.' (『武江年表』)

○ 安政 元年 (1854년): '아메리카風' (세계적 유행)이 유행하였다.

安政元年의 정월, 아메리카인이 橫濱(오키나와)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에 유행하였으므로 아메리카 風이라 불렀다. (『疫邪流行年表』)

○ 安政 3年 (1857년): '風邪의 이름은 不明' 2월, 風邪를 앓는 자가 많음 (『武江年表』)

○ 万延元年 (1860년): '風邪의 이름은 不明' 봄, 風邪유행 (『武江年表』)

○ 慶應 3年 (1867년): '風邪의 이름은 不明' (세계적 유행) 風邪, 熱病이 유행하다. (『武江年表』)

여기까지 주요한 風邪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서술

해봤지만 요약한다면 그 증상으로부터 생각해서 요즘 말하는 流行性感冒라고 말할 수 있는 風邪로서는, 예를 들면 享和二年 (1802년)에 'お七風'이 유행하였는데, 이 해는 이웃나라 中國에서도 역시 風邪가 대유행하여 많은 중국인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또 일본에서 文久元年(1861년)에 유행한 感冒를, 竹內玄同이란 西洋醫는 이것을 律斯聖京僞(리스신킹)로 진찰하여 謨斯篤(모스트) 治療書중에서 그 병에 관한 一篇을 抄譯한 일이 있다. 竹內醫師가 진단한 律斯聖京僞 (리스신킹)은 일명 '기리프'(Grippe) 라고 하는 즉 流行性感冒이다.<sup>30)</sup> 일본의 流行性感冒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 유행성 感冒로서의 風邪가 항상 유행적(pandemisch)으로 발생하여, 넓은 지역에서 맹위를 떨쳤다. 사람들은 流行性感冒의 맹위에 놀라 稻葉風, お駒風, 谷風, 御猪狩風, 암몬風, お七風, 薩摩風, 넌코로風, 단보우風, 津輕風, 琉球風, 아메리카風 등의 이름을 붙여서 무서워했다.

(2) 이와 같이 流行性感冒의 빠른 전염성도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漢方の 권위자로 醫學館 教授였던 多紀元堅은 天保八年 (1837년)에 流行性感冒의 전염성에 대하여 '西國은 구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輿羽는 霜月 하순에 유행하였고, 綿瓦 6천여리의 땅을 겨우 2개월을 채우지 않고 衆人들이 같은 병에 걸리게 하였으니, 邪도 또한 靈怪인가' (多紀元堅著 『時選讀我書』 二卷 天保八年成)이라고 서술하였고, 그 외의 의사들도 또한 같은 내용을 쓰고 이 병의 빠른 전염력에 놀라고 있었다.

또한 高階枳園도 '闇門合戶하여 一家중 한명도 免할 수 있는 자 없으니, 이는 심하여 기이하니, 대개 疫중의 가장 기이한 것이 될까.' (高階枳園著 『枳園隨筆』 一卷 天保年間成) 이라 서술하여, 이 병의 유행하는 기세가 활발한 것을 특필하고 있다.

(3) 流行性感冒는 보통 '서에서 동으로' 전염하여 갔다.

이 사실은, 에도시대 의사들의 주목을 모았다. 예를들면 幕府 말기의 長崎에서 시볼트에게 배운 本間稟軒은 '이 병의 유행은 반드시 關西에서 일어나 關東으로 이동하니, 근세에 유행한 お七風,

30)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p.29~36

琉球風, 檀法(단보우)風, 薩摩風의 類들은 즉 이것이다.'(本間棗軒著 '內科秘錄') 이라 기록해 남기고 있다.

또한, 富士川游의 '日本疾病史'(明治四十五年)에서는 에도시대에 27회나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도 그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해는 異常氣象이 출현한 小氷期와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바이러스병인 인플루엔자의 폭발적인 유행을 가져오는 방아쇠 역할을 異常氣象의 寒氣가 해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sup>31)</sup>

이상과 같은 流行性 感冒의 잦은 발생과 빠른 전염성은 일본 古方派의 의학적 풍토의 발현에 절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傷寒醫家 및 著書

#### (1) 名古屋玄醫(1628~1696)

字는 富潤, 또 칭하기를 閔甫, 別號는 丹水子, 宜春庵(혹은 桐溪<sup>32)</sup>)이며 京都(平安 출신이다.<sup>33)</sup>)에서 태어났다.<sup>34)</sup> 經書를 羽州宗純에게 배우고, 周易占法에 정통해 있었다. 30세를 넘어서부터 처음으로 의학을 배웠다. 喻嘉言의 「傷寒尙論」을 읽고나서부터 발분하여 옛 시대의 醫書를 찾아 읽었다. 그 이후로는 張仲景, 巢元方 등을 스승으로 하여, 힘써 李朱의 醫說을 배격했다. 그 때문에 많은 醫家들이 그를 비판하여 시끄럽게 되었다. 玄醫는 어렸을 때부터 병이 많았고, 晩年에는 腰脚癱瘓, 兩手痿痺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기력은 조금도 쇠하지 않아, 손님도 만나고 한편 著作에 전념했다. 귀족이 그를 맞이하러 와도 누운 채로 가마에 올라 모습을 감출정도여서, 여러 방면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결코 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보고 「甲斐의 德本」(카이노 도쿠모토)(즉 보람의 도쿠모토.)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다.<sup>35)</sup>

처음에는 福井慮庵을 스승으로 모시고 曲直瀨道三學派의 醫術을 학습하였다. 본인 著作중의 여러 곳에 曲直瀨玄由라는 이름을 기재하면서 아울러 그의 학설을 소개하였다. 40세 전후가 되어 曲直瀨道三의 학파를 이탈하고 새로운 의학사상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의 주요 요인은 자신의 임상경험에 의해서였으며 또 당시 최신 중국의 서의 출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sup>36)</sup> 일본에서는 「仲景全書」의 일부분인 「傷寒論」이 1659년에 출

현하여 名古屋玄醫가 1668년 처음 저작한 「纂言方考」가 완성시에는 이미 宋版 「傷寒論」이 간행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張仲景의 학설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그후 玄醫는 明의 喻昌 「傷寒尙論」, 「醫門法律」과 程應旆의 「傷寒論後條辨」을 읽고 張仲景의 傷寒古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古方을 제창하였다. 후에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표현을 열심히 하였으며 장중경에 대한 학설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1679년에 완성된 「醫方問余」중에는 「傷寒論」에 대한 처방이 적지 않게 소개되어 있고, 편찬한 「醫方規矩」에는 桂枝湯加味方 위주로 사용과 처방을 비교하고 있다.<sup>37)</sup>

「醫方問余」는 「病源候論」, 「千金方」, 「內經」, 「古今醫統」, 「醫書大全」, 「醫學綱目」, 「保生?事」, 「嬰童百問」, 「保赤全書」등 당시 유행하고 있던 支那醫書를 참조해 편술한 것이다.<sup>38)</sup>

1696년에 마지막으로 「金匱要略注解」를 저작하였다. 그는 임상실천에 있어서 仲景法에 依據하였으나 仲景의 方에는 구속받지 않았다. 그의 저서 「丹水子」, 序중에 「依仲景之意, 而不拘泥于仲景之方」이라하였다.<sup>39)</sup>

그외 著書로는 「難經註疏」, 「金匱註解(「金匱要略注解」)」, 「纂言方考」, 「用方規矩」, 「醫方問余」, 「醫學愚得」, 「丹水子」, 「醫方規矩」, 「醫方摘要」, 「婦人房中補益論」, 「秘結授調」, 「必用灸穴」, 「脈要訓蒙」, 「脈學源委」, 「續方考」, 「養生主論」, 「怪病一得」, 「醫學隨筆」, 「三焦命門弁」, 「食物本草」, 「首書難經本義」, 「民間歲時記」, 「素問假名抄」, 「역洞集抄」, 「易經集註抄」, 「杜律抄」, 「模蘇錄」, 「堪輿輯錄」, 「丹水家訓」<sup>40)</sup> 「經脈藥注」, 「經驗方」,

32)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134

33)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134

34)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7

35)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134

36)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7

37)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8

38)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135

39)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8

31)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 7年 pp.37-39

「病名俗解」, 「名古屋丹水翁痢疾辨」등이 있다.<sup>41)</sup> 그리고 弟子로는 芳村恂益, 飯田棟隆이 있다.<sup>42)</sup>

元祿9년 (1696년) 4월 18일에 죽었다. 69세였다.<sup>43)</sup>

(2) 後藤良山(1659년~1733년)

名古屋玄醫의 門弟이다<sup>44)</sup> 원래 이름은 達이고 字는 有成이고, 속칭 左一郎이며, 號는 養庵으로 良山은 別號이며 출생은 江戸 常盤橋 부근이다. 일찍부터 林羅山 家族創<sup>45)</sup>의 학교에서 儒學을 배우고 또 한편 佐藤儒人에게서 程頤와 朱熹의 학설을 전문적으로 배웠다. 그리고 의술은 名古屋玄醫의 학설이론을 내세우면서 宋金元에서 明清代까지의 醫家들 학설을 탈피하고 동시에 「內經」의 陰陽學說과 臟象理論의 가치를 부인하였다. 당시의 曲直瀨道三流派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病因病機學說을 버리고 「氣滯」를 질병의 유발인자로 보아 “一氣留滯論”을 제창하였다.<sup>45)</sup>

그래서 다음과 같은 一家言을 세웠다. “百年泰平, 遊惰한 사람은, 腹裏에 전부 癥疝이 맺힌다. 內傷諸疾은 이것에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云云. 대개 百病은, 一氣의 留滯에 생기는 것으로서, 특히 順氣로써 治療의 綱要로 삼는다.” 라고 간파하였다. 그 말하는 바는 명백히, 이제까지 아무도 발표한 적이 없는 의학의 新說이었다.<sup>46)</sup> 그의 치료 方劑도 順氣劑를 적용하였다. 그는 醫方復古를 주장하면서 한의학이론 그 중 「內經」과 「難經」의 한의학기본이론 및 明 淸시대에 이미 계통화된 한의학 辨證이론체계를 부인하였다. 이는 復古를 제창한 名古屋玄醫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sup>47)</sup>

그 당시, 의사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밀고 승의를 입어 승려의 지위를 얻고 기뻐하고 있었다. 後藤良山은 강하게 이것을 부정하여 삭발하는 것을 관두고 머리를 길렀다. 이보다 전에, 의사인 向井元升은 처음으로 머리를 묶고 옷을 고쳤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舊態依然하여 지금까지의 승려의 복장을 흉내내고 있었다. 하지만, 後藤良山이 삭발을 관두고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다른 의사도 일제히 그 흉내를 내었다.<sup>48)</sup>

그는 一氣留滯論을 통해 一派를 이루어 香川修庵, 山脇東洋, 永富獨嘯庵, 北山友松등에 의해 그의 治方이 전승되어 세상에 전해졌고<sup>49)</sup> 그의 아

들 後藤椿庵과 손자 慕庵의 저술서적중에 그의 의학사상과 치료기술이 간략히 들어있다. 「師說筆記」중에 주요 학술관점과 임상특징이 실려있으며 제자중 香川修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sup>50)</sup> 그 後藤良山은 享保 十八年(1733년)에 안타깝게도 급사하였다.<sup>51)</sup>

(3)저자 미상

「傷寒論別論」의 저자는 不明하나 後藤家에서는 「傷寒論」을 어떻게 觀察하였는가를 하는데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 椿庵先生曰, 衡陽先生曰, 栗庵先府曰과 같은 式으로 後藤良山의 流를 받은 사람들의 代代의 註가 羅列되어있다. 上下 二卷으로 되었고 漢文이다.<sup>52)</sup>

(4)香川修庵(1678-1735)

後藤良山의 門下人이다.<sup>53)</sup> 字는 太冲, 號는 修庵이다. 儒者 伊藤仁齋에게서 古典經書를 배우고 伊藤仁齋의 제자인 河天民同과 함께 “儒醫一本之說”을 제창하였다. 즉 “聖道醫術, 一其本而無二致”라 주장하였다. 후에 後藤良山의 의술을 배워 전

41)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9

42)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9

43)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135

44)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9

45)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9

46)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41

47)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9

48)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41

49)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p.39-40

50)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0

51)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41

52)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p.57-58

53)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9

40)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135

념하였다. 의학사상의 핵심은古今의醫書중에 오직「傷寒論」이 가장 중요하고「內經」,「難經」은 잡스러운 邪說이라는 것이다. 저서로는「藥選」,<sup>54)</sup>「一本堂行余醫言」,「一本堂藥選」,「一本堂藥選續編」등이 있다.<sup>55)</sup> 溫泉醫學의 선조이기도 하며 寶曆 5년(1755년) 2월 13일, 73세에 죽었다.<sup>56)</sup>

(5) 吉益東洞(1702-1773)

東洞의 이름은 爲則, 字는 公言, 통칭 周助라 했다. 東洞은 號이다. 安藝廣島(히로시마)출신으로, 선조는 室町官領?山政長이다. 어렸을 때부터 큰 뜻을 품어 家名을 다시금 부흥시키겠다고 생각했다.

阿川氏로부터 兵學을 배우고, 검술과 말타는 것도 수업했다. 그러나 분별이 생길 나이가 되어 그 방면은 시대에 뒤지는 것임을 깨달아 父 道庵의 문인인 能津祐順을 따라 金瘡外科를 배웠다. 그러나 어느 날, 애를 낳는 것은 부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고, 金瘡이라고 해도 결국 外傷이니 자신의 외과 기술을 쓸 정도의 상처는 아니다 라고 탄식했다. 古人은 “위대한 大臣이 되지 못한다면 위대한 醫師가 되라”고 했다. 그래서 東洞으로서도 위대한 의사가 말로 자기의 길이라고 확신하여, 醫書를 모아 각고의 노력과 주경야독을 통해 「素問」과 「難經」 이하 百家의 說을 숙독했다. 그리하여 溫補의 諸說을 배격하고 「의사의 생각을 고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京都에 나와 열심히 古醫道를 주장하고 다녔다. 그 때가 그의 나이 37세였다.

하지만, 그의 說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0을 넘길 때까지 한 사람의 환자도 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우 생활이 가난하게 되었다. 그래서 土偶 따위를 만들어 팔아 목숨을 부지했지만, 원래보다 빈곤이 점점 깊어갔다.

어느 날 일대 결심을 해서 五條의 醫廟에 나가 7일간 단식을 했다. 그리고 “爲則이 不敏하여, 일찍이 古醫道의 부흥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금은 그 때문에 貧窮하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목숨이다. 내가 지향한 길이 틀리다면, 제발 빨리 이 목숨을 끊어주기 바란다” 라고 神에게 고했다. 친구의 한 사람인 賈翁은 이 정황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생활자금을 내주었다. 東洞은 받지 않았지만, 賈翁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만민을 위

해 사용해 주기 바란다.” 고 간곡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겨우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덕분에 생활 기반은 간신히 지탱할 수 있었다.

이후, 당시의 명의로던 山脇東洋과 의학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東洋은 東洞의 힘을 인정하고 밀어 주었다. 이 때문에 東洞의 이름은 차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수년 동안에 「醫新」, 「類聚方」, 「方極」, 「藥徵」등을 완성시켜 명성을 얻었다.<sup>57)</sup>

「藥徵」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藥物만에 대하여 論한 것이다.<sup>58)</sup>

그의 집에는 전국에서 입문자가 모여들었다. 列侯를 시작으로 그를 禮를 다해 초대하였고, 마침내 그의 의술은 당대의 모범이 되었다. 옛날의 醫道를 주장하는 자는, 그의 문하생이든 아니든 간에 東洞을 첫째로 받들어 스승으로 삼았다.

문하생 중에서는 村井琴山, 中西深齋, 岑少翁 등이 유명하게 되었다. 세간에서는 琴山을 西州老, 岑少翁을 東海翁이라 불렀다. 東洞의 저서로서는 그밖에 「醫事古言」(「古書醫言」,<sup>59)</sup>이라는 책이 있지만 동일한 책인지는 알 수 없다.), 「醫事或門」, 「方選」, 「丸散方」, 「醫方分量考」, 「建珠錄」, 「藥徵續編」, 「遺稿」 등이 있다. 또, 그의 口授를 筆錄한 것, 혹은 가르치는 것을 서술한 것으로 「輯光傷寒論」, 「補正輯光傷寒論」(大塚敬節은 「輯光傷寒論」은 「補正輯光傷寒論」이라고 하여 동일한 책으로 보고있다.<sup>60)</sup>), 「刪定十二建方」, 「家塾丸散方」, 「腹診論竝凶」, 「東洞先生痘瘡新論」, 「東洞先生答問書」, 「東洞先生配劑錄」, 「東洞先生応問錄」, 「東洞翁遺草」 등이 있다.<sup>61)</sup>

「輯光傷寒論」은 上下 二卷 二冊本인데 「補正輯光傷寒論」이라고 되어있다. 이 책은 吉益東洞의 遺

55)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0

56)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5

57)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p.188-190

58)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8

59)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1

60)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6

61)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p.188-190

54)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5

教를 藤田大信, 鶴田眞, 向田迪 三人의 門人이 補正한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傷寒論」의 斷片을 붙 뿐이고 '太陽之爲病, 脈浮頭項強痛, 而惡寒' 까지도 古義에 反한다고 버리고 있는 형편이므로 더욱 徹底하고 간이한 텍스트로 되어있다. 漢文으로 되어있고 訓點이 붙어 있다.<sup>62)</sup>

「類聚方廣義」는 吉益東洞의 삼부작 중 두가지, 「方極」과 「類取方」을 합친 것으로 尾台榕堂이 주석을 덧붙인 것으로, 東洞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중에서 가장 중요한 條文을 발췌하여 독자의 배열법으로 구성하여 놓았고, 게다가 榕堂이 난해한 부분을 설명한 주석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읽어서 이해되는 책이다.<sup>63)</sup>

名古屋玄醫 이후로 後藤良山, 椿庵, 香川修庵, 山脇東洋, 永富獨喃庵, 北山友松子 등에 의해 古醫道는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융성하게 된 것은, 東洞이 필사적인 정신으로 정면으로부터 강력하게 소신하는 바를 관철한 시대이다. 東洞은 後藤이나 山脇등의 설에 동조해서, 唐宋 이후의 의학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道三 이래로 모든 의사들이 溫補說을 믿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치료법이 성행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 구해내고 싶다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병은 단 하나의 독이 원인이다(萬病一毒論). 약이라 하는 것도 모두 독물이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독을 가지고 독을 공격하는 것으로, 몸 안에서 독이 없어지면 쾌적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元氣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지도 않으며 감소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하여 補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병을 생각하는 경우도 證을 보고 치료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원인을 듣거나 하지 않았다.

또한 脈候를 우선으로 한 것도 없었다. 病氣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는 특정의 이름이라든지 특정의 원인에는 무관심하여 某湯의 症, 某藥의 症등이라 불렀다. 그리고 毒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에 대한 약을 처방했지만, 그 약을 먹은 자가 暝眩을 하는 정도에 의해 효과를 판단했다. 이른바 暝眩에 대해선 「尙書」에 있는 '약을 먹어도 暝眩을 하지 않는 듯 하면 병은 고치지 못한다.' 라는 說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說은 일본의학계에서는 상식을 깨는 破天荒(좀처럼 일

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중국고사)이었고,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과감한 새로운 주장이 유행한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東洞의 說은 당시의 의학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어,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일어났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대세는 東洞의 說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良山의 一氣留滯論에 비교해서 吉益流(一毒論)에 쏠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또 그는 鍼灸에 대해서는 臟腑經絡說은 醫家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도 治療에는 도움이 되지않았다. 鍼灸法과 같은 것은, 뜸을 떠 나쁜 穴은 하나도 없고, 침을 놔서 나쁜 經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64)</sup>

吉益東洞은 인체 해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는 그의 저서 「醫斷」에서 解剖無用論을 주장하며 죽은 뒤의 內臟을 본다고 해도 살아 있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65)</sup>

그는 安永 2년(1773년) 9월 25일, 71세로 죽었다. 大正4년(1915년) 11월, 御大典이 있을 때 從四位를 받았다.<sup>66)</sup>

#### (6) 山脇東洋(1705-1762)

이름은 尙德, 字는 玄飛, 子樹 初號는 移山이고 후에 東洋으로 고쳤고 통칭 道作이라고도 한다. 京都에서 출생했다.<sup>67)</sup> 後藤良山의 門下에서 의학을 배웠는데 古方의 泰斗이라고 稱한다.<sup>68)</sup> 寶曆 12년(1762년) 8월 6일, 58세 나이로 왕진도 오기 전에 발병해서 죽었다.<sup>69)</sup>

소년시대때 山脇玄修에게서 의학을 배우고 21세때 그의 양자로 들어갔다. 25세때 法眼(의사의 관직명<sup>70)</sup>)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山脇玄修는 曲

63) 西山英雄 漢方醫學 基礎 診療 大阪 創元社 昭和 47년 p.15

64)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p.188-190

65) 여인석 황상의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서울 대한의사학회(제3권 제2호) 1994 pp. 231-214

66)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189

67)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1

68)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9

69)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9

62)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6

直瀨道三의 학술사상과 일맥을 이어왔고 山脇東洋도 그의 문하였으나 후에 後藤良山の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언제 그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東洋俗語」의 첫머리에 後藤良山을 방문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藏志」 책중의 4곳에 後藤良山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다. 山脇東洋의 의학사상은 吉益東洞의 臨床至上主義와는 같지 않다.<sup>71)</sup>

「素問」과 「靈樞」를 읽고 난 후 이 책들에 나타나는 陰陽, 五行, 五臟六腑, 三部九候 및 臟腑의 형태와 結胸 및 한의학 전통 用藥이론등 관념적인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게되었다. 더구나 唐이후의 중국의학은 특히 宋代에 朱子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어 실제적인 의학과는 거리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sup>72)</sup>

그는 「傷寒雜病論」을 唯一無二한 聖典으로 보고 수 십년간 吉益東洞과 張仲景학술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知己가 되었고 임상가로서 실력이 있었으며 中宮侍醫에까지 임용되었다.<sup>73)</sup>

또 그는 일본에서 최초로 인체 해부를 시행한 사람이다.<sup>74)</sup>

東洋이 직접 해부를 하게 되는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古學派 儒學의 영향을 의학에 받아들인 古方派의 實證精神이었다. 東洋이 어려서부터 해부학에 뜻을 품고 옛날부터 전하는 五臟六腑說이 정말 옳은가를 실물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는 인체해부는 관청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 해부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았다.<sup>75)</sup> 그후 東洋은 醫官 小杉玄通등과 刑屍를 解剖하여 「藏志」책에서 舊說의 妄論을 看破하였다.<sup>76)</sup>

1759년에 발간된 「藏志」는 일본 최초의 해부 기록서로 乾, 坤 2권으로 되어있다.<sup>77)</sup> 이 책은 해부 소견을 기록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록 격으로 漢學에 소양이 깊었던 東洋이 이런 저런 기회에 써두었던 문장을 모아 놓은 것이다. 당시 그가 해부한 사형수의 영혼을 위로한 祭文이 「藏志」의 부록으로 전한다. 「藏志」는 본문과 5개의 해부도로 이루어졌는데, 해부도는 처형당한 뒤 목이 없는 시체를 그렸다. 그가 해부를 한 주된 목적은 大腸과 小腸의 차이점을 보는 것과 한방에서 척추골이 17개라고 하는 것

이 잘못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가 관찰한 내용은 「藏志」에 있는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東洋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氣管이 心臟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尿管을 정액이 나가는 길이라고한 것과 같이 잘못을 기술한 것도 없지는 않았다. 東洋은 서양의 의학서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직접 해부를 해서 인체의 내부를 접한 뒤에는 서양의학의 내용이 옳았음을 알았다고 했다. 東洋이 참고한 책은 파도바대학 교수였던 요한 베슬링(Johann Vesling, 1598-1649)의 해부서였다. 이와같이 「藏志」에는 잘못된 내용도 적지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개개의 소견이 올바른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증적인 입장에 서서 중국에서 전래된 五臟六腑說이 실제와 다름을 지적하고 의학은 실제의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음을 주장한 점이다.<sup>78)</sup>

그러나 傷寒派의 실증적인 정신으로 일본 해부학의 발달을 촉진시켰지만 吉益東洞에서 볼 수 있듯이 傷寒派에 속한 醫者들이 모두 해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었다.<sup>79)</sup>

東洋은 蘭方醫學에 흥미를 느껴 漢蘭折衷派로의

71)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51-52

72) 여인석 황상의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서울 대한의사학학회(제3권 제2호) 1994 p.211

73)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2

74) 여인석 황상의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서울 대한의사학학회(제3권 제2호) 1994 p.211

75) 여인석 황상의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서울 대한의사학학회(제3권 제2호) 1994 p.212

76)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9

77)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2

78) 여인석 황상의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서울 대한의사학학회(제3권 제2호) 1994 p.213

79) 여인석 황상의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서울 대한의사학학회(제3권 제2호) 1994 p.214

70) 여인석 황상의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서울 대한의사학학회(제3권 제2호) 1994 p.211

方向으로 발전하였고, 蘭學의 전래와 함께 杉田玄白 등의 「解體新書」의 刊行을 계기로 蘭方醫學이 새 시대를 암시하는 醫學으로 등장하였다.<sup>80)</sup> 著書로는 「藏志」, 「養壽院醫則」, 「濟言餘言」, 「山脇家」, 「八十二秘方」과 山脇의 상용 처방집인 「養壽院方函(일명 「山脇方函」)<sup>81)</sup> 등이 있다. <sup>82)</sup> 安永 2년(1773년) 9월 25일, 71세로 사망하였다. <sup>83)</sup>

(7) 六角重任

「古方便覽」을 저술하였다.<sup>84)</sup>

(8) 中西深齋(1724-1803)

이름은 惟忠, 主馬라고 통칭했다. 선조는 伊賀忍者の 일족이다. 처음에는 유학을 배웠지만, 후에 吉益東洞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여러 명의 侯들로 부터 초빙을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일생을 町醫者로 살았다. 그의 저서 「傷寒論」註釋書는 이때까지 「傷寒論」 공부의 참고문헌으로 일컬어졌다. 享和 3년(1803년) 3월 22일 70세로 사망했다.<sup>85)</sup>

「傷寒論辨正」과 「傷寒名數解」을 저술하였다. 「傷寒論辨正」은 三卷六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辨太陽病脈證并治法上」부터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法」까지의 各條에 대하여 해설을 가한 것인데 深齋 독자의 설이 각처에 보이고 원문에 풍부한 서책이다. 특히 「傷寒論」의 정문과 후인의 추론, 주문을 구별하려고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문으로써 쓰여지고 訓點이 없으므로 읽는데 곤란을 느낀다.

「傷寒名數解」는 五卷五冊으로 되었으며 寒五名, 三陰三陽, 傷寒中風, 合病并病등에 대하여 深齋의 견해를 술하고 있다. 이것은 한문이지만 訓點이 붙어 있다. 이 두가지의 저술은 「傷寒論」 研究의 經과 緯이며, 전자가 經에 상당하고 후자가 緯에 해당한다.<sup>86)</sup>

(9) 村井琴山(1733-1815)

이름은 純, 字는 大年, 보통 椿壽라고 부르며 琴山은 그의 號이며 별칭으로 原診館, 六清眞人, 清福道人이며 肥後熊本에서 태어났다. 그의 父, 村井見朴은 熊本醫學校 「再春館」의 교수로 비교적 저명한 의사였다. 琴山은 어려서부터 古方派 香川修庵을 私淑하고 처음에는 山脇東洋을 스승으로

모시고 1762년 전후에 京都에가서 吉益東洞을 평생 스승으로 삼았다. 후에 九州 각지를 순회하면서 「傷寒論」을 강의하며 의학계몽활동을 벌였고 50세에 이르러 肥後藩의 醫官에 임명되었다. 저술로는 「醫道二千年眼目編」, 「和方一千方」, 「東洞先師三書刪定」, 「方極刪定」(1755년 정도에 저술<sup>87)</sup>), 「方極刪定考征」, 「類聚方刪定」, 「讀類聚方」(1762년 정도에 저술<sup>88)</sup>), 「類聚方存疑方補緯」, 「葯徵考訂」, 「葯徵續編附錄」, 「診餘漫錄」, 「診餘漫錄外篇」, 「診餘隨筆」, 「聚毒編」, 「塾中雜記」, 「痘瘡問答」, 「白酒」, 「古方」, 「痘訣」, 「方法法略」, 「原診館七則解」, 「論儒醫言」, 「藥量考」, 「藥性歌附餘」등이 있다. 그의 저술들의 주요내용은 吉益東洞의 저작과 학설을 책정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었다.<sup>89)</sup>

(10) 岑少翁(1732-1818)

이름은 逸, 자는 班如, 歸昌, 처음에는 右膳이라 하였다가 후에 少翁이라 고쳤다. 號는 峇丘이다. 京都에서 태어나 나중에 江戸로 이사하여 醫業에 종사했다. 吉益東洞의 門下에서 古方을 배웠다. 일생동안 저술한 책이 없으며, 같은 門人 村井琴山과 같이 「吉益의 龍虎」라고 칭했다.<sup>90)</sup> 제자로는 江戸醫家인 尾臺淺岳이 있다.<sup>91)</sup>

81)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2  
 82)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9  
 83)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6  
 84)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4  
 85)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24  
 86)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친 書苑堂 1984 p.49  
 87)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596  
 88)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596  
 89)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3  
 90)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4  
 91)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7

80)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41

(11) 中神琴溪(1744-1835)

이름은 孚, 통칭 右內라고 하며, 자는 以령, 號는 琴溪로 近江國에서 출생했다. 吉益東洞의 門下에 들어갔으며 임상을 잘하여 '近江扁鵲'이란 말을 들었다. 그는 門人들을 가르칠 때 "重事實, 學實學"을 중요하게 가르쳤고 1798년 12월 山脇東海(山脇東洋의 손자)와 함께 시체를 해부하여 내장 기능을 관찰하였다.

저서로는 「生生堂醫譚」, 「生生堂雜記」, 「生生堂治驗」, 「生生堂養生論」, 「生生堂中神家方書」 등이 있다.<sup>92)</sup>

(12) 吉益南涯(1750년-1813년)

이름은 猷이고 어릴 때 이름은 大助이고 또 周助라고도 불렀다. 字는 修夫, 처음에는 號가 謙齊였으나 후에 南涯로 고쳤다. 吉益東洞의 長子이고 京都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의 깊은 古方派醫學의 영향을 받았으며 24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遺業을 계승하였다. 당시 그의 醫風을 思慕하고 그의 醫德을 구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 그 주요 門人으로는 吉益北洲, 吉益西洲, 吉益腹軒, 賀屋恭安, 中川修亭, 華風青洲, 華風良平, 賀川玄悅, 大江廣彦, 武貞夫, 難波抱節, 橋本松庵, 石坂惠甫, 白土双儀, 和田元庸, 赤石希范, 伊藤大助, 風田正吾, 長野孔弼, 田中貞卓 등이다.

1786년 그는 「方機」著했는데 張仲景의 醫方의 適用과 活用に 대해서 論述하였다

그는 "氣血水說"을 唱導하여 이를 근거로 「傷寒論」을 해석하였다. 이는 당시 醫界의 일대 바람을 일으켰다. 1793년 전후로 그의 門人 大江廣彦이 이를 정리하여 「醫范」一書を 지었는데 이 책은 그의 학술 핵심을 闡述한 것이다. 그는 "毒은 本來 無形인데 有形의 物質에 따라서 바야흐로 그 證이 생기는 것이다. 氣에 따라서 氣證이 발생되고 血에 따라서 血證이 발생되며 水에 따라서 水證이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에 관한 「氣血水藥徵」을 저술하였는데 藥物에 따라서 氣, 血, 水 세 종류로 나누어 구분하여 그 藥物의 功能과 臨床應用要領을 記述하였다.<sup>93)</sup> 吉益南涯의 學術의 주요 목적은 그의 부친 吉益東洞의 학술적인 잘못을 규명 정리하기위해 父의 「萬病一毒論」을 補修하려고 氣血水說을 論하였다.<sup>94)95)</sup>

그의 著書로는 「觀症辨疑」, 「傷寒論精義」, 「方

庸」, 「方議辨」이 있고, 그의 門人이 정리하여 완성한 것으로는 「成績錄」, 「險症百問」, 「續醫斷」, 「傷寒論章句」, 「續建殊錄」, 「金匱要略精義」 등이 전한다.<sup>96)</sup> 「傷寒論章句」는 吉益南涯가 「傷寒論」의 正文을 選하여 章과 節로 分類整理한 것이며, 잘 總括되어 있다. 一冊으로 된 것이다.<sup>97)</sup> 文化 10년(1813년) 6월 13일, 64세로 사망하였다.<sup>98)</sup>

(13) 永富獨嘯庵(1732-1766)

이름은 風介, 字는 朝陽, 長門國(山口縣)에서 출생하였다. 소년시절부터 服部南郭과 太宰春臺에게서 유학을 학습하고 幕府醫官 井上元昌에게서 사사받았다. 19세때 山脇東洋의 문하에 들어가 한의학과 해부학을 배웠다. 후에 山脇東洋의 명을 받아 奧村良築의 吐法을 전수받아 이를 성취하여 吐法 運用의 名家가 되었다. 의학학술사상은 「實證新識」을 주장하고 張仲景학술을 숭상하였다. 저서로는 「吐方考」, 「囊語」, 「漫遊雜記」 등이 있다.<sup>99)</sup> 그는 의술뿐만 아니라 經世學에도 능했다. 그의 저서로는 「?瘡口訣」, 「論傷寒論」, 「葆光秘錄」 등이 있다.<sup>100)</sup>

(14) 川越衡山(1758-1828)

諱는 正淑, 字는 君明 또 大豪, 號는 衡山이며 京都에서 출생했다. 中西深齋의 古方醫學을 따르고 50년간 「傷寒論」을 연구하고 脈證을 최고 중요시하였다. 脈에는 形과 勢가 있고 證에는 奇와 正이 있다고하여 질병 진료와 치료시 이를 명백히 判別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sup>101)</sup>

93)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5

94)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 339

95)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5

96)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5

97)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6

98)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0

99)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5

100)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9

92)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4



「傷寒論脈證式」, 「傷寒藥品體用」을 저술하였다. 「傷寒論脈證式」은 八卷 六冊으로 되어있다. 中西深齋의 「傷寒論辨正」의 系統에 屬하는 것이며, 平易하게 쓰여져서 알기 쉽다. 漢文이지만은 訓點이 붙어서 읽기 쉽다.<sup>102)</sup> 이 책은 자신의 실천경험을 결합한 것으로 脈證의 源始를 추구하고 張仲景의 처방용약의 뜻을 闡發한 책이다. 「傷寒藥品體用」이 있어서는 본인의 「傷寒論」중의 三陰三陽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쓴 책이며<sup>103)</sup>, 「傷寒論」의 藥物을 體와 用으로 나누어 그 作用을 論하고 있으나 말의 遊戲에 불과하다.<sup>104)</sup>

(15) 中川修亭(1771-1850)

이름은 故, 定故이고 字는 其德, 修亭이고 號는 壹, 壹山 통칭은 周貞이며 京都에서 출생했다.<sup>105)</sup> 「修正傷寒論」과 「傷寒全論」을 저술하였다. 「修正傷寒論」은 全四冊으로 지었으며, 第一冊目은 南涯의 「傷寒論章句」에 準하여 節로 나누고 第二冊과 第三冊으로써 考證을 하였으며, 第四冊에 藥方을 신고 있다. 또 修亭의 著에 「傷寒全論」이라는 銅版의 冊本이 있으나 이것과는 別冊이다.<sup>106)</sup>

(16) 宇津木昆臺(1779-1848)

이름은 益夫, 字는 天敬, 俗稱 太一郎이며 號는 昆臺이다. 名古屋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淺井貞庵과 平野龍門에게서 醫術을 배우고 18세때 京都에서 여러 大家들에게 遊學을 하여 醫術의 깊이가 深奧하였다. 그 후 京都에서 開業하고 점점 古方派의 名家중의 一派를 형성하였다.<sup>107)</sup>

「古訓醫傳」은 그의 著인데 二十五卷으로 되어있다. 「醫學警悟」, 「風寒熱病方經篇」, 「風寒熱病方緯篇」, 「藥能方法辨」으로 大別되어 「醫學警悟」는 「傷寒論」, 「金匱要略」의 總說, 「風寒熱病方經篇」은 「傷寒論」의 註解, 「風寒熱病方緯篇」은 「金匱要略」의 註解이며, 「藥能方法辨」은 「傷寒論」, 「金匱要略」에 나와있는 藥物의 藥能을 論한 것이다. 이 서는 日本語이고 氣血水說에 의하여 理論을 전개하였다.<sup>108)</sup>

그는 일체의 질병 症狀은 風, 寒, 熱 3종이 외는 없고 일체의 病症은 모두 氣, 血, 水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였다. 그 외 그의 著述로는 「日本醫譜」가 있다.<sup>109)</sup>

(17) 尾臺榕堂(1799-1870)

이름은 元逸, 字는 士超, 號는 榕堂, 敲云, 통칭 良作으로 불렸으며 北越(지금의 新潟縣)에 태어났다. 尾臺淺岳의 제자로 들어가 古方을 배웠다. 그는 다방면으로 공부하여 經史, 詩文, 歷史와 古方家이면서도 後世方, 西洋醫術, 鍼灸, 刺絡 등을 겸용하였다. 저서로는 「方技雜志」, 「類聚方廣義」, 「重校藥」, 「療難百則」, 「井觀醫言」, 「霍亂治略」 등이 있다.<sup>110)</sup>

(18) 和田元庸(1780-?)

號는 峰州, 峰州圓, 奧州人이다. 그의 의학사상은 張仲景을 신봉하고 吉益南涯를 스승으로 숭상하였다. 저서로는 「三世醫譚」과 「傷寒論精義外傳」이 있다.<sup>111)</sup> 「傷寒論精義外傳」에서 師說을 敷延하여 있다. 그림에 의한 설명이 많고 매우 好著하다.<sup>112)</sup>

(19) 多紀藍溪

考證學派의 대표자는 多紀一家이다. 多紀家は 名醫, 丹波康賴의 後裔로서 官立江戸醫學館인 躋壽館을 창건하고 의학강습을 개시하였는데 多紀藍溪때에 이르러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자신이 教諭로서 醫官의 자제들을 교육시켰다.<sup>113)</sup>

102)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1

103)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6

104)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1

105)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6

106)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6

107)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56-57

108)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0

109)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7

110)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7

111)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7

112)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3

101)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55-56

(20) 多紀桂山

藍溪의 子이다.<sup>114)</sup> 통칭은 安長, 字는 元簡이다.<sup>115)</sup> 父業을 이어 德川幕府의 侍醫겸 督醫學事로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성질이 강직하고 한때 上臆에게 거슬려 侍醫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다. 文化 7년(1810년) 12월 20일, 58세로 사망하였다.<sup>116)</sup> 그의 저서로는 「素問識」, 「靈樞識」, 「傷寒論輯義」, 「金匱要略輯義」, 「醫階」, 「櫟窓類鈔」등 10여부가 있다.<sup>117)</sup>

「傷寒論輯義」는 十卷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으로부터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까지의 各條에 대한 解釋이며, 中國에서 지어진 有名한 著述에서의 引用이 大部分이고 자기의 見解를 확실히 내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不足한 點도 있으나 獨斷이 적고 穩健하여 名著임에 遜色이 없다. 한문이며, 訓點이 붙어있다.<sup>118)</sup>

(21) 多紀元胤

元簡의 子이다. 家學을 이어 함께 의학에 정력하여 역대 제가들의 저서를 탐색하고 衆說을 참작하여 醫經, 醫方의 本의를 천발하였다. 저서로는 「醫籍考」, 「體雅」, 「疾雅」, 「藥雅」 등이 있다.<sup>119)</sup>

(22) 多紀元堅

元堅은 통칭 安叔, 字를 亦柔라하여 茵庭을 號로 하였다. 多紀元簡(桂山)의 제 3제자이다. 어렸을 때부터 家學을 발전시키자는 뜻을 가졌다. 天保3년(1831년) 醫學所의 講書가 되고, 6년 奧詰로 받아들여지고, 7년 侍醫로 임명되어 法眼(法眼大和尚位의 准말, 중세이후 승려에 준하여 의사, 화공, 유생에게 내린 지위, 다음 지위는 法印)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法印에 나아가 樂春院이라 칭했다. 저서로서는 「傷寒論述義」, 「傷寒廣要」, 「素問紹識」, 「樂治通義」, 「名醫彙論」, 「時選讀我書」, 「同統編」, 「服診後」,<sup>120)</sup> 「金匱要略述義」, 「雜病廣要」, 「女科廣要」<sup>121)</sup> 등이 있다.

「傷寒論述義」는 全五卷外에 「傷寒論述義補」이 붙어 있어서 二冊 또는 三冊으로 되어있다. 「傷寒論」의 綜說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며, 卓見이 많다. 漢文이고 訓點이 붙어 있다.<sup>122)</sup>

(23) 岡本玄治

曲直瀨道三의 계승자이다. 「傷寒衆方規矩」을 저

113)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0

술하였다.<sup>123)</sup>

(24) 片倉鶴陵

字는 深甫이고 相模사람이다. 考證派의 多紀家의 門하에서 공부했지만,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發分하여 다시 京都에서 賀川流産科를 습득해서 一家를 이루었다. 그의 업적은 「靜儉堂五種」에 남아 있다. 文政 5년(1822년) 9월 10일, 73세로 사망하였다.<sup>124)</sup>

「傷寒啓微」를 저술하였다.<sup>125)</sup>

(25) 森立之

「傷寒論巧註」를 저술하였다.<sup>126)</sup>

(26) 喜多村直寬

「傷寒論疏義」, 「金匱要略疏義」, 「傷寒六經折義」,<sup>127)</sup> 「傷寒論剖記」, 「經方權量略說」를 저술하였다.

「傷寒論疏義」는 七卷十冊으로 되어있다. 서문의

114)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0

115)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24

116)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24

117)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0

118)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친 書苑堂 1984 p.49

119)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1

120)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279

121)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1

122)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친 書苑堂 1984 p.49

123)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8

124)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8

125)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1

126)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1

127)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1

주해는 있으나 辨脈, 平脈, 傷寒例, 痙濕喝病的 諸篇을 생략하고있다. 한문이며, 訓點이 없다. 「傷寒論剖記」一卷과 「經方權量略說」一卷이 있다. 전자는 「傷寒論」중에서 문제가 될만한 字句의 考證이 주로 되고, 후자는 傷寒中의 藥물의 용량의 고증이다. 모두 한문이고 訓點이 없다.<sup>128)</sup>

(27) 原南陽

이름은 昌克으로 水戶사람이다. 젊어서 京都와 古方을 山脇家에게 배우고 産科는 賀川家에게 배웠다. 후에 江戸小石川에서 개업을 했지만 奇行 때문에 빈곤하게 고생하는중에 水戶侯의 증병을 고쳐 이후 30여년간 侍醫로 일했다. 文政 3년(1820년) 8월 16일 68세에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일본 최초의 軍陣의학 전문서인 「砦草」, 광견병의 치료서인 「瘦狗傷考」, 「叢桂亭醫事小言」이란 임상경험서가 있다.<sup>129)</sup>

그리고 傷寒관련서인 「傷寒論夜話」가 있다. 四卷五冊으로 되어있고 日本語로 되어 읽기쉽고 잘 있어있으나 少陽病까지만 있고 그 뒤는 版이 되어있지 않다.<sup>130)</sup>

(28) 山田正珍

山田圖南<sup>131)</sup> 혹은 山田宗俊<sup>132)</sup> 이라 되어있다. 「傷寒論集成」과 「傷寒考」를 저술하였다.<sup>133)</sup> 「傷寒論集成」은 十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書의 註釋과 「辨太陽病脈證并治上」부터 「辨陰陽易差後勞復脈證并治」까지의 各條에 대하여 解說하여 있다. 이것은 「辨正」과 달라서 中國 및 日本 先人の 說을 많이 인용하였다. 또 正文과 後人の 追論과의 區別을 分明히 하기위한 努力이 들어 있다. 이것도 漢文이지만은 訓點이 붙어 있으므로 읽기 쉽다.

「傷寒考」, 一卷이 있다. 이 書는 「傷寒論」에 관한 考證이며, 啓發되는 곳이 많다. 漢文인데 訓點이 붙어있다.<sup>134)</sup> 1779년에 저술하였다.<sup>135)</sup>

(29) 橘春暉

「傷寒論分註」와 「傷寒外傳」을 저술하였다.

「傷寒論分註」는 簡單하고 要領이 좋은 註釋이 붙어 있다. 이 書도 漢文으로 되어 있고 訓點이 붙어 있다. 「傷寒外傳」의 이 書는 上, 中, 下의 三卷으로 되어있다. 그 中の 下卷이 「傷寒論」을

研究하는 데에 直接으로 쓰이는 點이 많다. 이것도 漢文이고 訓點이 붙어 있다.<sup>136)</sup>

(30) 柳田活齋

「傷寒論釋解」, 十卷을 저술하였다. 序文에서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에 이르기까지 註解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註譯書는 以上の 三篇을 생략하여 太陽病篇以下에 대하여 論한 것이 많으나, 이 서는 全篇에 亘한 註解書이다. 한문이고 訓點이 붙어있다. 稀本이다.<sup>137)</sup>

(31) 內藤希哲

「醫經解惑論」과 「傷寒雜病論類編」을 지었다.

「醫經解惑論」은 1731년에 저술된 것으로<sup>138)</sup> 上, 中, 下 三冊六卷으로 되어있다. 內藤希哲은 「神農本草經」, 「黃帝明堂經」, 「內經」, 「扁鵲難經」, 「仲景金匱玉函經」을 醫書의 五經이라하여 이 五經은 같은 世界觀 위에 선다고 생각하여 이 입장에서 「醫經解惑論」을 썼다. 이와 같이하여 希哲은 「黃帝內經」, 「難經」 등의 世界觀을 巧妙하게 도입해서 張子和의 儒門에 事師하여 힌트를 얻어 「傷寒論」을 臟腑經絡의 思想에 의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取하였다. 이런 意味로써 「內經」과 「傷寒論」을 結付하는 用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장은 日本의 「傷寒論」研究에 있어서는 傍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書를 읽음으로써 印象상 계발되는

129)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5

130)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4

131)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329

132)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596

133)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41

134)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49

135)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596

136)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0

137)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0

138)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596

128)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0

點은 결코 적지 않다.

「傷寒雜病論類編」은 內藤希哲이 筆을 일으켜서 喜哲의 사후, 그의 門人에 의하여 完成하였으므로 「醫經解惑論」을 총론으로 본다면 이 書를 각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十三卷 十二冊으로 되어 있다. 「傷寒論」 연구서로서는 特異한 것이며, 임상상에 用을 하는 것이 卓見이 隨處에 보인다. 이서는 발행부수가 적었다고 보이며 珍本에 屬한다. 이상의 두 책은 모두 漢文이고 訓點이 붙어 있다. 139)

(32) 白水出良

「傷寒論劉氏傳」 四卷四冊을 저술하였다. 이 序에서는 「傷寒論」을 三百八十五條로 나누어 그 중의 二百六十八條를 正文으로 하고 百九十七條를 後人의 追記로 하여 正文에 註를 加하고 있다. 이 著者에 의하면 正文은 戰國以來 扁鵲, 倉公 等の 傳하는 것이라고 하며, 晉의 王叔和, 唐, 宋의 諸子의 말들을 加하였다고 한다. 漢文이며, 訓點이 붙어 있다. 140)

(33) 齋靜齋

「傷寒論特解」을 지었다. 이 책은 齋靜齋의 著이지만은 靜齋가 執筆途中에 死亡하여 門人과 花井孟一이 이것을 繼續하였으나 孟一이 또 죽었으므로 靜齋의 門人 淺野元甫가 完成한 것이다. 이 書는 十卷七冊으로 되어 「傷寒論」중에서 正文 百二十章을 選하고 其他는 後人의 摠入文으로 하였다. 正文의 주해는 詳細를 極하여 煩雜에 지나친 듯 하다. 이 서도 漢文이지만 訓點이 있다. 141)

(34) 天泰岳著

「復古傷寒論徵」을 저술하였다. 이 사람은 序文에 의한 즉, 齋靜齋의 門人이다. 이 書는 「復古傷寒論」, 一卷一冊과 「復古傷寒論徵」, 六卷三冊으로 되어 있으며, 「傷寒論特解」의 亞流이다. 142)

(35) 淺野元甫

「傷寒論國子辨」을 지었다. 淺野元甫가 「傷寒論特解」에 의하여 正文과 摠入文으로 나누어서 이에 日本文으로 平易한 註釋을 한 것인데 初心者에 適當하다. 十一卷 七冊으로 되어 있다. 143)

(36) 雲林院了作

「傷寒論國子解」를 저술하였다. 「傷寒論」의 전문을 들어서 어려운 한자에는 루비가 달아 있고 簡單한 註가 있다. 이것도 초심자에 適當하다. 144)

(37) 及川東谷

「傷寒論古訓傳」을 저술하였다. 東面吉益先生の 遺意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객은 東洞의 醫說과 大端히 틀리다. 五卷五冊으로 되어 있고 간혹 탁견이 있다. 中川壺山에 의하면 이 서는 東洞의 名을 찬양한 것이라고 한다. 그럴는지 모른다. 한문이며, 訓點이 붙어 있다. 145)

(38) 早川宗庵

「傷寒論實義」, 五卷五冊을 지었다. 나의 藏書는 奧田謙臟先生の 舊藏이며, 珍本에 屬하나 國회도서관에도 일부가 있다. 宗庵에 의하면 「傷寒論」은 陰陽升降의 理를 설명한 것으로 이 법칙에 어긋난 것은 모두 後人의 손으로 된 것이라고 하여 「傷寒論」을 正文과 僞撰으로 나누어 있다. 한문이고 訓點이 붙어 있다. 146)

(39) 東梅林泰明

「傷寒論通斷」, 十冊本을 저술하였다. 山田正珍의 「傷寒論集成」과 中西深齋의 「傷寒論辨正」의 輯잡기에 重點을 두었다. 매우 劍幕에 차인 책이며, 간혹 탁견이 있다. 한문이고 訓點이 붙어 있다. 147)

139)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1

140)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2			
141)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2			
142)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5			
143)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2			
144)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2			
145)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2			
146)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3			
147)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3			

(40) 岡田省吾

「傷寒論方法瓊辨」三卷三冊을 저술하였다.

이 著者는 吉益南涯의 門人이다. 南涯에는 「傷寒論精義」, 「傷寒論正義」 등의 저술이 있으나 門人의 필기를 바탕으로 한 사본이다. 그런데 「傷寒論方法瓊辨」은 판본이고 氣血水說에 의하여 「傷寒論」을 해설하고 있다. 일본어로서 읽기 쉽다.<sup>148)</sup>

(41) 高矢知白

「傷寒論正文復聖解」을 지었다. 易의 이론으로써 「傷寒論」을 해석한 것이다. 金古景山の 「傷寒論水火交易國子辨」도 易의 世界觀으로써 「傷寒論」을 解説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욱 철저하다. 1942년에 나의 藏本을 토대로하여 복제본을 만들어서 나는 그 때 해설을 썼다. 그래서 이 書는 이미 二卷六冊本으로서 文久二年에 版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일본어로 되어 읽기 쉬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sup>149)</sup>

(42) 和田東郭

字는 泰純이다. 後世方은 大坂의 戶田旭出에게서 古方은 吉益東洞에게서 學問을 배웠다. 寬政 9년에 光裕天皇侍醫가 되었다. 저서로는 「蕉窓方意解」이 있다. 享和 3년(1803년) 8월 3일 60세에 사망했다.<sup>150)</sup>

「傷寒論正文解」八卷四冊을 저술하였다. 臨床家의 立場에서 分明하게 解説하여 있다. 어려운 考證들은 일절 省略하고 있다. 일본어로 되어 읽기 쉽다.<sup>151)</sup>

(43) 伊藤大助

「傷寒論張義定本國子辨」을 저술하였다. 이 저자의 손으로 된 「傷寒論張義定本」上, 下 二卷을 다시 일본어로 해설한 것이거나 三卷三冊이며, 太陽病의 도중에서 그치고 있다.<sup>152)</sup>

(44) 古林見桃

「傷寒論闕疑」八卷六冊을 저술하였다. 闕疑라는 表題에 當지 않고 특이한 점이 적은 註解書다. 한문으로써 되고 訓點이 붙어 있다.<sup>153)</sup>

(45) 原元麟

「傷寒論精義」, 「傷寒論圖說」을 저술하였다.

「傷寒論精義」은 五卷六冊으로 되어있다. 이 書는 元麟의 말을 빌리어 말하면 「古今の 註解를 빌리지 않고 또 자기의 臆測으로써 이것을 斷하지 않는다. 곧 「傷寒論」을 가지고 「傷寒論」을 說한 것이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訓點이 붙어 있다. 「傷寒論圖說」은 「傷寒論」의 대의를 圖說한 것이다.<sup>154)</sup>

(46) 中莖陽谷

「傷寒論正義」, 「證法格略譜」을 저술하였다. 「傷寒論正義」는 八卷外에 「圖說」과 附錄이 붙어서 上下의 二冊으로 되어있다. 그 凡例를 본 즉 이 書를 正解라고 이름함은 誤字錯簡을 고쳐서 經傳, 舊註를 바르게 하고 이에 주해를 加함으로써이다. 이것을 바르게 하고 이것을 解하는 데는 諸註家의 說에 의지않고 家君의 新意를 넣지 않으며, 오로지 周易에 근본하여 사실에 徵하다. 고로 唐宋已降의 醫眼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는 異端에 비슷하다고 하여도 聖人의 道를 가지고 이것을 볼 때는 燦然한 三代의 大道이다. 라고 述하고 있으나. 큰 覺悟로 改廢가 단행되어있다.

「證法格略譜」는 傷寒, 中風, 三陰三陽의 區別을 表로 整理되어있다.<sup>155)</sup>

(47) 桃井桃庵

「傷寒論古訓口義」八卷四冊을 저술하였다. 日本文으로 쓰여져서 읽기 쉬우나 이 書도 크게 改廢를 단행하여 시인하기 어려운 條文이 적 많다.<sup>156)</sup>

148)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53

149)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p.53-54

150)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22

151)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54

152)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54

153)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54

154)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54

155)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55

156)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p.55

(48)廣岡子長

「家刻傷寒論」八卷五冊을 저술하였다. 家刻이라고題하고 있으나 앞의 二著와 같은 改廢를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써 正文을 정하고 이에 온전한 註를 加하여서 계발되는 점이 많은 好書이다. 한문으로 되어있고 訓點이 붙어있다.157)

(49)北條若齊

「簡易傷寒論」를 저술하였다. 「傷寒論章句」의 體裁인데 簡單한 要領으로 설명되어 「傷寒論」독자의 정리에 참고된다.158)

(50)佐井聞庵

「傷寒論私撰」을 저술하였다. 法橋의 佐井聞庵의 著이나 「傷寒論」을 曲解하여 엉뚱한 邪道로 빠지고 있다. 이러한 迷著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159)

(51)岡田靜安

「傷寒論韻語圖說」三卷六冊을 저술하였다. 韻語의 研究에 의하여 「傷寒論」을 해설하려고 한 특이한 書冊이다.160)

(52)野呂天然

「傷寒論舉考」四冊을 저술하였다. 가장 變態의 연구서의 하나이다. 「傷寒論」의 字句를 그 字의 起源부터 論하여 해설하려고 한 것이다. 例컨대 「辨太陽病脈證并治」의 곳을 본즉 「辨..兩辛..刀辛自辛也刀判斷之也會意太本作太後省作太..一..人..云二」과 같은 式이다. 그리고 藥方은 後世方인지 民間藥인지 蘭方인지 잘 分辨할 수 없는 別다른 것을 羅列하고 있다.161)

(53)山邊文伯

「傷寒論箋註」三卷三冊을 저작하였다. 文伯은 吉益東洞의 門人이었으나 이 著述을 본즉 東洞의 說과 전혀 다르며, 經絡說에 의하여 論을 세우고 있다. 凡例에서는 「今三陽三陰, 暫時 舊說에 따라서 經絡의 義를 錄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에 拘碍되지 않음」이라 말한다. 또, 「近世, 古醫를 唱하고, 仲景의 書를 講하는 자, 그 論에 拘泥하여 그 處方의 妙를 모른다. 或은 그 論을 刪削하고 그 法論의 幽함을 알지 못함의 그 立方은 意에

있고, 意는 論에서 出한다. 그 意를 解하지 않고 能히 그 方을 얻을수 있겠느냐 .....」하고 있어서 그 內容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漢文으로써 되어 있고 訓點이 붙어 있다.162)

(54)宮義方

「翼註傷寒論」五卷五冊을 저술하였다. 「傷寒論」을 正文과 後人の 追論으로 나누지 않고 傷寒例以下의 各條에 註解를 가하고 있다. 漢文으로써 되어 있고 訓點이 붙어있다.163)

(55)淺田宗伯(1815 -1894)

이름은 惟常, 栗園이라 부른다. 信濃사람이다. 한방 최후의 巨匠으로 幕府 의관, 곧이어 明治시대부터는 皇室侍醫를 지냈다. 大正天皇 출산시에도 奉임하였다. 明治 27년(1894년) 3월 16일, 81세로 사망하였다.164)

「傷寒論識」六卷七冊을 저술하였다. 自己의 見識에 의하여 「傷寒論」의 條文을 吟味하고 이에 考證과 著解를 加하고 있다. 名著다. 漢文으로 되었다. 識는 '식'으로 읽지 말고 '지'로 읽을 것. 그리고 「古方藥議」도 저술하였는데 「傷寒論」과 「金匱要略」속의 藥物만에 대하여 論한 것이다.165)

그의 「傷寒翼方」, 「傷寒辨要」, 「傷寒辨術」등이 있다.166)

(56) 森立夫

「傷寒論攷註」를 저술하였다. 大冊이지만 考證에

157)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5

158)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6

159)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6

160)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6

161)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7

162)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7

163)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7

164)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11

165) 大塚敬節 傷寒論解說 부천 書苑堂  
1984 p.58

166)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329

지나쳐 臨床上 쓰이는 곳이 적다.167)

(57) 村井椿壽

「傷寒論講錄」를 저술하였다. 大冊이지만 考證에 지나쳐 臨床上 쓰이는 곳이 적다.168)

(58) 內藤尙賢

「古今藥品考」를 저술하였는데 「傷寒論」과 「金匱要略」과의 藥物만에 대하여 論하였다.169)

(59) 大江廣彦

廣彦은 大江氏가 本性으로 紀伊 출신이다. 號는 三谷이다. 처음으로 吉益南涯의 門에서 배우고, 후에 太田見龍, 島本宗円, 松川鶴磨, 中島豊足, 衣川長秋, 武藤直記, 佐藤方定들과 함께 和方家로서 알려졌다. 「大同類聚方」을 고정했다. 저서는 다음과 같다. 「醫道」, 「醫訓」, 「診則中醫談」, 「神方經驗」, 「二神遺方」, 「眼疾診候」, 「大同類聚方藥品考」, 「傷寒類五類」, 「傷寒論二義」, 「傷金方意略解」, 「偽金方去加方」, 「醫道二千年眼目篇評」, 「西說醫事弁」, 「本朝名醫傳」, 「六徑問答」, 「産技」, 「骨技」, 「活技」, 「按腹」, 「製藥秘傳」, 「麻藥考」, 「脚氣治弁」, 「痘診論」, 「内外療法등이다.170)

(60) 本間棗軒

이름은 資章, 字는 和卿, 통칭 玄調라 했다. 棗軒은 號이다. 江戶의 출신이다. 原南陽, 杉田立卿, 시볼트, 高階积園에게 師事했다. 또한 경서를 太田錦城에게 받았다. 후에 紀州에 가서 華岡青州의 門에 들어가 수 년간 수업을 한다. 그곳에서 외과의 비법을 깊이 익혀 江戶에 돌아와, 日本橋(니혼바시, 지명) 搏正町에 개업했다. 그 뒤, 水戸烈公의 侍醫가 되어 명성을 떨쳤다. 이밖의 저서로 「續瘍科秘錄」, 「內科秘錄」, 「傷寒論類釋」, 「傷寒論取策」, 「療治知要」, 「醫方纂要」, 「醫方纂要分註」, 「經穴撮要」, 「皇朝醫林談」, 「藥室雜識」, 「日新醫談」 등이 있다.171)

華岡流 외과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明治 5년 (1872년) 2월 8일, 69세로 사망하였다.172)

(61) 奥劣齋

이름은 基다. 山城사람으로 古方과 賀川流産科를 공부하여 一家를 이루었다. 朝廷侍醫가 되어

文政 12년에는 仁孝天皇准三后의 산후 尿閉를 카테터를 이용하여 확실히 효과를 보고, 法眼의 위치에 까지 올랐다. 天保 6년(1835년) 9월 4일, 58세로 사망하였다.173)

(62) 賀川玄悅

이름은 光森, 字는 子玄이다. 近江, 彦根사람이다. 古方을 배워 京都에 나왔으나 의학을 업으로 삼지 못하고 낮에는 텨마잡기로 밤에는 안마로 생계를 유지했다. 우연히 근처에서 난산을 하고 있을 때 재치로 분만을 성공한 것으로 부터 産科의 기법을 연구하여 많은 신기법을 고안했다. 후에 宮中の 御産으로도 초빙되었고, 만년에는 德島藩醫가 되었다. 安永 6년(1777년) 9월 14일, 78세로 사망하였다.174)

(63) 松原一閑齋

이름은 慶輔이고 山城사람이다. 並河天民의 문인으로 “古方派 四大家”중의 한 사람이며, “儒醫”의 개척자중 한사람이다. 明和 2년 (1765년)에 77세로 사망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松原方函」은 이용가치가 높다.175)

(64) 及川叔山

「傷寒論古訓傳」을 저술하였다.176)

(65) 저자미상

「傷寒論微辭辨」이 있다.177)

- |           |        |       |      |
|-----------|--------|-------|------|
| 168) 大塚敬節 | 傷寒論解説  | 부천    | 書苑堂  |
| 1984      | p.58   |       |      |
| 169) 大塚敬節 | 傷寒論解説  | 부천    | 書苑堂  |
| 1984      | p.58   |       |      |
| 170) 石原保秀 | 東洋醫學通史 | 東京    | 自然社  |
|           | 昭和 54年 | p.253 |      |
| 171) 石原保秀 | 東洋醫學通史 | 東京    | 自然社  |
|           | 昭和 54年 | p.266 |      |
| 172) 石原明  | 入門現代漢方 | 東京    | 立風書房 |
|           | 1972   | P.333 |      |
| 173) 石原明  | 入門現代漢方 | 東京    | 立風書房 |
|           | 1972   | P.331 |      |
| 174) 石原明  | 入門現代漢方 | 東京    | 立風書房 |
|           | 1972   | P.323 |      |
| 175) 石原明  | 入門現代漢方 | 東京    | 立風書房 |
|           | 1972   | P.311 |      |
| 176) 石原保秀 | 東洋醫學通史 | 東京    | 自然社  |
|           | 昭和 54年 | p.329 |      |

167)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8

(66) 金古景山

「傷寒論水火交易國子辨」을 저술하였다. 178)

### Ⅲ. 결 론

日本醫學에서 古方派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일본의 근세사회에 들어가는 德川幕府체제 이후로 정치 사회는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어 물질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평민들의 생활도 윤택해졌다. 따라서 그 때까지의 불교사상 및 사변론적 관념사고를 벗어나 유교나 의학에서 처음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본질을 추구하려는 사상적 변화가 일어났다.

2. 근세 일본의학에서 중국의 金元宋明代의 溫補法의학사상은 일본 사회 환경과 질병의 유형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後世方 醫學思想은 주도권을 점점 잃어가고, 이에 대응하여 漢代 張仲景의 傷寒醫學思想을 주도하는 古方派가 형성되어 중국과 한국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一派로 발전하였다.

3. 일본의학에서의 仲景思想은 室町時代 坂淨運이 明나라에서 유학하면서 「傷寒論」을 일본에 가져오면서 시작되어 安土桃山時代의 永田德本에 의해 본격적으로 古方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4. 일본인에의해서 발간된 傷寒 관련 서적은 531種이상이 되며 일본의가들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傷寒醫學思想을 갖추고 있었다.

5. 근세 중국이나 한국의 醫家들과는 달리 陰陽五行의 관념적인 思辨을 배척하고, 仲景 「傷寒論」 방식의 실제적인 實學思想을 숭상하는 일본 古方派 醫家들은, 이 시기부터 들어오는 서양의학은 이들의 기본적인 의학사상과 결부됨에 따라 서양의학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 참 고 문 헌

1.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2. 井上清, 일본의 역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3.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4. 여인석, 황상익,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

- 정, 서울, 대한의사학회(제3권 제2호), 1994
5. 顧旭平, 柯雪帆, 識論日本古方派的形成, 北京, 中華醫史雜誌(제2권 제1기), 1987
6. 西山英雄, 漢方醫學の基礎と診療, 大阪, 創元社, 昭和47년
7. 中島陽一郎, 病氣日本史, 東京, 平成7年
8.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9.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50年
10.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11.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54年
12.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177)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p.329

178)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53